

홀로 있지 않게 하고 더불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27편 3-5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9월 12일 (토) 제 1793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더 많은 부부가 가족을 우선시한다!

CT, 코로나19 이후 '소울메이트를 결혼상대로 찾지 않는다' 보도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과 이로 인한 경제적 낙진은 미국 가정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수백만의 부모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그중 많은 이들은 누군가의 조부모이다. 그리고 부모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들 가정과 자녀의 삶을 바꾸어 놓을 불안정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의 의미는 무엇일까? 반갑게도 버지니아대학교의 국가결혼프로젝트 책임자이며 가족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W. 브래드 포드 윌콕스(W.

BRADFORD WILCOX)에 따르면, 현재 결혼모델은 결혼 당사자들 간의 낭만적/정서적 연결을 중시하는 '소울메이트' 모델보다는 '가족우선적인' 결혼모델이 부각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단단하고 안정적인 가족 우선적인 결혼환경으로, 자녀들에게 안전한 가정을 제공해나간다고 할 수 있다(COVID-19 Is Killing the Soulmate Model of Marriage. Good: The silver lining for a post-coronavirus America: More married couples will be family-first).



실적으로 인한 이혼으로 미국의 여러 부부가 타격을 입고 있다. 남편이 실직한 경우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정규직장이 없는 남성은 이혼할 확률이 약 33% 더 높지만, 여성의 실업으로 인한 가정 분열의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격리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인해 가정에서의 갈등과 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 다섯 개의 대도시를 조사한 잡지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 범주는 감소했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보고는 증가했다. 사회학자 마크 리그너스가 지적했듯이 결혼율은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떨어지고 있었으며 2018년에 기록적인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의 불황과 같은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결혼하기를 꺼릴 것이며 결혼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결혼율의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불안정한 경제적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젊은이들 중 최소 3분의 1은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위기와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결혼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수백만의 미국인은 중국인이 소위 말하는 '할벗은 가지' 즉 친족이 없는 남성과 여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할벗은 가지'에 속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전염병, 사회불안, 개인 채무문제 또는 경제위기와 같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힘들다. 부정적 변화에 직면할 때 이들은 중년과 특히 노년기에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남성과 여성은 결혼과 가족의 의미, 방향 및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종교가 없는 많은 미국인이 특히 그러할 것이다. 이는 미국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한 줄기의 희망이 있다. '소울메이트'와 같은 결혼의 개념은 희미해지고 '가족우선적인' 결혼모델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단하고 안정적인 가족우선적인 결혼환경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가정을 제공할 수 있다. 1970년대에 시작된 소울메이트 결혼모델은 결혼이 두 사람 사이의 강렬한 정서적 또는 낭만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우리는 소울메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수많은 노

래, 할리우드 영화 및 많은 자기계발 서적을 통해 듣는다.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또는 댄앤제이와 저스틴 비버의 노래 "10,000 Hours"를 떠올려 보시면 알 수 있다. 이 만연한 신화적인 개념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극도로 비현실적인 기대하고 결혼하게 되며,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으로 인해 종종 이혼에 이르게 된다. 또한, 소울메이트 모델은 특정 경제 및 정치 조건에 따라 예측되기도 된다. 50년 전 심리학자인 엘리 핀켈은 아브라함 매슬로가 정의한 욕구 단계설에 따른 '마운트 매슬로(Mount Maslow)'라는 가설을 통해 세우고 부부가 이를 자유롭게 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개념은 정부와 시장이 음식과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책임져 준다면 미국인들이 단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으므로써 결혼한 부부가 정서적 연결, 개인적 성취, 결혼의 행복과 같은 '자아실현'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다음에 일어날 일 발견하려 시도하고 시험

Churchleaders, 코로나19 단계에서 교회지도자 유형별 대처방식 소개

당신이 교회 지도자라면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대면모임을 재개해야 하는가이다. 모임을 중단한 적이 없는 교회도 있고, 여러 유명한 교회에서는 모임이 이미 재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게는 모임을 재개하라는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교회리더십 전문가인 조프 슈라트(Geoff Surratt)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서 교회지도자들에게서 3가지 유형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CChurch Leaders: Survivor, Reviver or Improvisor; Which Are You?).

1. 살아남으려는 교회지도자 를 희망한다.

첫 번째는 물 위로 머리를 계속 내밀고 있기 위해 발버둥 치는 유형의 지도자다. 현금이 급격히 줄어 들고 비축해둔 재정은 바닥이 나고 있으며, 곧 모임을 재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개 소규모 교회들은 자리를 잘 잡지 못한 상태에서 위기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더 마음이 간다. 그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더 건강한 교회의 도움을 역할을 찾을 수 있기

2. 다시 돌아가려는 교회지도자

두 번째는 위기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유형의 지도자다. 이런 교회들은 가능한 한 빠르게 다시 모임을 재개하려고 한다. 그들의 교회모델은 위기 이전에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단됐던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이다. 한 대형교회의 목사님 트위터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보았다. (4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푸른초장 한세영 목사



인터뷰 지용수 목사

3면 4면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성경암, 성경대,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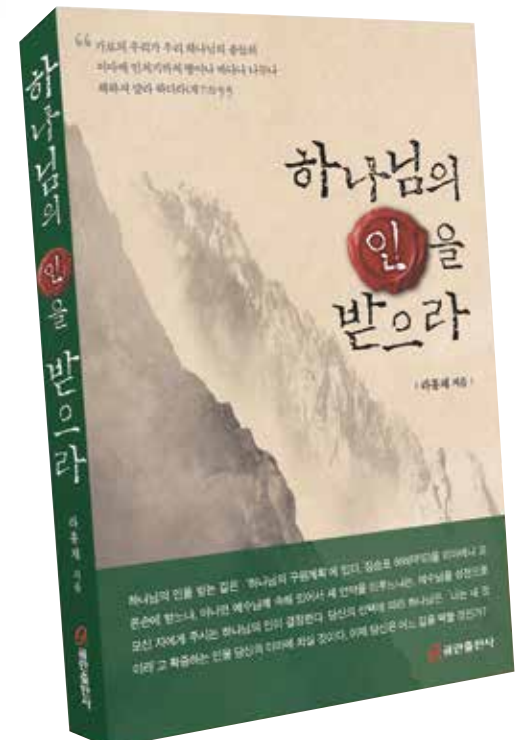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bbook.org |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부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발행인 칼럼

마시멜로 전쟁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유치원생 600명 각자 앞에 맛있는 마시멜로가 있었다. 한 심리학자가 그들에게 자기 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먹지 않으면 하나를 더 주거나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준다는 약속을 하였다. 15분 동안 보여준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당장 그것을 먹는 아이도 있었고,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아이도 있었고, 눈앞의 마시멜로를 아예 안 보려고 옆드린 아이, 그것을 잊으려는 듯이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판정을 부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 연구의 완성은 먼 훗날에 있었다. 이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추적한 연구는 어릴 때 자제력을 보인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업에 취업했으며, 인간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우수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험은 "만족지연능력"이라는 개념을 도출해내기도 했다. "만족지연능력"이란 자신의 만족을 유보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을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자제력 또는 의지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이런 마시멜로 실험은 많은 관심과 논란을 자아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높은 가치에 대한 의지력이 있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은 연구의 후속 표본이 적었다는 점에서 크게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에 다소 논란이 있다하여도 마시멜로 연구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토록 하였다. 더 높은 성취를 위해 현재의 재미도 있고 아깝기도 한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삶의 방식이다.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좋은 것을 마시멜로에 이입(移入)하면 이 마시멜로에는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진다. 마시멜로 전쟁은 아침부터 시작된다. 더 잠을 자고 싶다는 마시멜로와 이 잠에서 일어나야 더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가치가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잠자리에서부터 충돌한다. 당장은 그냥 편하게 쉬고 싶다는 마시멜로와 훗날 아름다운 몸매를 약속하는 운동도 서로 싸움을 한다. 음식은 또 어떤가. 지금 먹기 좋은 달콤한 음식이 마시멜로가 되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맛은 좀 그래도 건강을 가져다 줄 음식이 우리를 동요(動搖)케 한다. 마시멜로 전쟁은 이처럼 전방위(全方位)적으로 일어난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눈앞의 마시멜로를 이길 의지력이 있으면 우리는 머지않아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마시멜로 전쟁이 있다. 구원을 받았으나, 직분도 있으나 여전히 마시멜로는 다가온다. 세상적으로 즐거웠던 습관들이 치명적인 마시멜로가 되어 날마다 유혹한다. 게으름, 탐욕, 탐닉, 미움, 불평, 핑계, 거짓, 차별 등등이 마시멜로이다. 모두 그럴듯한 마시멜로이다. 그러나 그런 옛 습관의 마시멜로를 취하면 안 된다. 진정한 만족을 눈앞의 마시멜로를 찾는 일이 아니다. 만족을 지연시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영적 의지력이 출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옛 습관의 마시멜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배여 있지 않다. 그런 마시멜로를 취하면 당장 좋을 것 같지만 금방 후회하고 곧 비참해진다. 마시멜로를 넘어 있는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원하심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유치원 아이들 중에도 후에 더 많이 먹기 위해 지금 당장 마시멜로를 먹는 것을 참은 아이들이 많았다. 의지력이 대단하지 않은가.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눈앞의 마시멜로를 거절하는 의지가 넘쳐야 하지 않겠는가.

혼자서 투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줘요!

BBC, 6개월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19 감염환자 모니크 잭슨 투병스토리 보도

모니크 잭슨(Monique Jackson)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팬데믹 초기 무렵이다. 이후 거의 6개월이 지났지만 증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수천 명 중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일

이라고 한다. 그녀는 이 상황을 자신의 그림일기로 만들어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She got ill when the pandemic hit - and still is, six months later).

약 1년 전 모니크 잭슨은 테드에서 버섯에 대한 강연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무의 생육을 돕는 버섯곰팡이는 숲 전체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에 월드와이드웹의 원조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24주째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녀는 종종 그 강연을 떠올리곤 한다.

상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던 이들도 있다.

모니크는 친구와 함께 기차여행을 한 후 함께 감염됐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증상이 똑같았다. 그때만 해도 서로 연락을 하며 지냈지만 이후 연락은 서서히 끊어졌다. 모니크는 "처음 겪어보는 이상한 상황이라서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초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당시 런

감도 심해졌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 보낼 기운도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2주 후 일부 증상은 호전됐지만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다. 그녀는 "가슴 한 가운데를 꼬집으면, 불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웠다"고 했다. "가슴 왼쪽에서 이가 썩을 때만큼 커다란 통증이 느껴졌어요. 심장마비가 생긴 거라고 생각했죠." 111(영국의 의료상담 전

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사라졌어요."

모니크는 그 과정에서 소셜미디어를 차단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글을 보면 불안해졌고 호흡이 가빠졌기 때문이다. 평소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뉴스를 챙겨보던 그녀가 더 이상 뉴스를 보지 않게 됐다.

이후에는 뉴스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친구를 통해 듣기로 했다. 그런데 친구가 들려준 소식이 흑인과 소수인종에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었다. 다인종 가족 출신인 모니크는 또 다시 두려워했다. 그녀는 "검은색 피부의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맞는 공포영화 같았다"고 말했다. 어느 날은 욕조에 누워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진행자가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무심코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벌떡 일어나, 미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코로나19 증상 통테일(어떤 현상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최근의 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바이러스 반응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지난 3월. 초기증상은 비교적 온순했다. 하지만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한 채 5개월이 지났다.

모니크는 자신을 외향적이라 표현했다. 타이복싱과 주짓수를 배우러 다녔고, 집에서 런던 중심부에 있는 미술관까지 하루 12마일씩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몇달째 그녀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이제는 외부 활동은커녕, 양치질을 위한 체력비축방법을 침실 벽에 붙여놓을 정도다.

몸이 따라주지 않자, 그녀는 갑갑함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증상과 치료과정을 그림일기로 만들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 그림일기는 자신의 몸 상태를 알리고 그녀와 같이 "장기투병"을 하고 있는 이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던은 여전히 추운날씨였지만 옷을 최대한 가볍게 입고 이마에 얼음을 댔다. 체온계가 쯤뻑이러 직접 체온을 재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분명 발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2주차로 접어들자 숨 쉬기가 힘들어졌다. 구급차를 불러 검사한 결과 산소수치에는 이상이 없었다. "의료진은 제가 증상이 나타났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당시 영국은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해 진단키트를 아끼고 있는 터라, 그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다.

처음에는 자연치료를 써보려 했다. 하지만 생마늘과 고추를 먹었는데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피로

화번호)에 전화를 걸었더니,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라는 조언이 돌아왔다. 분명한 원인은 모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통증이 사라지자,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목이 불타는 듯했고 복통도 생겼다. 의사들은 케양으로 진단했다. 이후 이 증상은 바이러스로 인한 위장의 문제로 판정됐다.

6주차 무렵에는 소변을 볼 때마다 따가움과 함께 아래쪽 허리에서 통증이 시작됐다. 의사는 세 차례 항생제를 투여한 후에 박테리아 감염의 문제는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녀는 "그냥 통증이

그리고 나니 최근 그녀가 의지해온 사람들 다수가 유색인종이라는 게 떠올랐다. 그녀가 탕던 무버의 운전사, 병원직원, 모퉁이 식료품 가게 사람들 등. 그녀는 "코로나19 속에서 내가 마주치던 모든 이들이 유색인종이었다"고 말했다.

마침내 9주 전 모니크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를 받기까지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집안 내에서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했다. 냉장고를 열 때 각자 사용할 부위를 다르게 정했다. 식사도 각자의 방에서 혼자 했다. (3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반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책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 201)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www.chpress.net
광고문의: 347-223-1531 718-886-4400
chpress.kjs@gmail.com info@chpress.net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검사, 지방간, -격동 소파기 질환, -최신 특수검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교육학 박사 Ed.D/목회학박사 D.Min/교육목회학박사 D.Ed.Min
목회학석사 M.Div/성경적상담학 석사 MABC/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신학연구석사 MTS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00명 이상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더 많은 부부가 가족을 우선시한다

(1면에서 계속)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불안, 지속적인 질병 및 무능한 정부 등의 침울하고 힘든 세상에서 소울메이트의 신화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에게 더는 매력적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시장이 자녀 양육 및 교육, 가사, 가족사업 또는 노부모를 책임져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 교회의 지원 등의 헌신과 지역 사회 지원이 필수적인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하다. 즉, 부부는 결혼에서 돌 사이의 감정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배우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가정은 붕괴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다. 최근의 조사는 우리에게 그 기준점을 제공한다. 연구에 따르면, 대불황 동안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결혼 약속을 더 굳건히 했으며, 많은 경우 이혼이나 별거계획을 취소했다. 실제로, 미국인들이 결혼생활에서 더욱 헌신하고 집중하면서 이혼율은

지난 경기침체 이후 20% 이상 떨어졌다.

가족우선모델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중요시한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실시된 가족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윤리를 받아들인 부부는 별거가 가능한 선택이라고 믿는 사람들보다 이혼할 가능성이 적다고 한다. 또한, 서로에게 헌신적인 부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의 부부 중 “사랑이 존재하는 한 이 결혼생활을 지속한다”고 약속을 한 사람들의 77%가 결혼생활에 만족했다. 그러나 “이혼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 중 82%가 결혼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결혼에 대한 보다 헌신적인 접근방식은 부부에게 더 큰 신뢰, 정서적 안정 및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어 행복하게 결혼을 지속할 확률을 높인다.

결혼이 더 중요해지고 자녀출산의 선택권이 생김에 따라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비율이 증가해 많은 미국 어린이들이 안

정적인 가정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대불황의 결과가 이런 일을 초래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혼의 감소와 혼외출생한 아기의 비율감소로 인해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키우는 비율이 증가했다. 대우행 중에 그리고 그 후에도 가족우선적 결혼에 대한 개념이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결혼한 미국인이 독신이나 이혼한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감정적, 재정적 상태로 이 유행성 시대를 버틸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 일반적으로 결혼한 성인이 독신 성인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최근 미국 기업연구소의 페이튼 로스와 함께 진행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결혼한 미국인은 독신인 미국인보다 외로움을 느낄 확률이 약 30% 적다. 또한, 결혼한 부부는 경제적으로 더 나은 안정성을 누리며 독신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미혼인 미국인보다 더 많은 돈을 절약하고 친척에게 더 쉽게 경제적 지원을 할 확률이 높다.

가족우선적 구조의 결혼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정서

적 교제는 결혼생활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하고 이를 유지하고, 다른 가족구성원을 돕고, 서약을 지키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교회는 결혼부터 장례식 때까지 지역사회에서 가정의 구성원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가족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부부는 활기찬 결혼생활을 즐길 가능성이 더 크다. 리그너스가 언급한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은 다른 미국인들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비록 세상에서 많은 것이 황폐해지고 혼란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지만 전염병의 시대 속에서도 결혼한 가정의 장래는 밝아 보이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기 위해 결혼 또한 더욱 단단하고 안정적이며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특히 크리스천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혼자서 투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줘요!

(2면에서 계속)

하루는 친구와 바람을 쐬러 집 근처 공원으로 갔다. 꼬마 아이가 그녀에게 달려왔고, 모니크가 몸을 돌려 껴안았다. 아이의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냈다. 모니크는 감염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퍼뜨릴까봐 두려웠다고 설명했다. 아이 어머니는 ‘아픈 사람이 집에 있어야지 왜 나오느냐고 말했다.

그녀에게 별이라고 있는 일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내가 코로나19에 감염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고 했다.

마침내 영국 정부가 증상을 보이는 모두에게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쁜 소식이었

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그녀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검사소는 드라이브 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차가 없었다. 그녀는 “내 친구들 대부분도 운전을 못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한 친구가 나섰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친구가 위험해졌다는 사실이 마음에 편치 않았다.

검사소에서는 6월의 락다운 때 찍은 면허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하는 그들은 언뜻 보기에도 꽤 어려 보였다. 결과는 음성이었다. 친구들과 가족에게 전염시키지 않을 것이기에 큰 위안이 됐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지 않아서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감염 이후 4개월쯤 되었을

때 그녀는 이사를 했다. 청소 같은 간단한 일도 쉽지 않아서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숨 쉬는 일은 조금씩 나아졌다. 숨이 가빠서 쉽지 않았던 계단 오르기도 조금씩 편했어졌다. 하지만 방청소를 위해 진공청소기를 4분 정도 돌리다가 숨이 차서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는 3주 동안 침대 신세를 져야 했다.

모니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의사들 역시 이처럼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다. 모니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때로는 계획을 세워도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가 의사와 과 이메일과 대화를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양치질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피로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녀는 현재 상황을 다스리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필요한 모두가 건강보험을 통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물론 예상치 못했던 재미있는 일도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버섯 애호가들과 친해진 것이다. 그녀는 버섯에 향바러스 성질이 있다는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다. 물론 버섯은 이것 외에도 더 놀라운 일을 한다.

버섯은 나무뿌리에 닿아 있는 균사체의 열매다. 균사체는 뿌리와 영양분을 교환한다. 많은 곰팡이 전문가들은 버섯이 건강한 나무의 영양분을 다른 나무에게 나눠준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친구들을 보며 버섯을 떠올리곤 한다. 그녀가 병에 걸린 이후로 크게 의지해 온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방 안에 고립됐다”며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고 썼다.

(더 많은 이야기는 모니크의 인스타그램 계정, @coronadiar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의 두 모습-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신규 감염자가 생겼다는 내용 외에는 그 감염자와 한인교회의 연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

다.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 감염이 급작스럽게 확산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그 급증의 중심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언론이 연일 보도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도구로 전락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진보나 보수냐의 문제를 떠나 어떤 교회도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을 막으려고 시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도 바이러스의 피해자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피해자입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고 만족감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바이러스의 피해자입니다. 다만 누가 먼저 감염되었는지 그 순서에 의해 갑자기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언론에서 색깔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국민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경계심과 증오심만을 만들게 될 뿐입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이 회사 내에서 ‘코로나 1호 확진자’가 될까봐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첫 확진자가 되면 직장도 지역사회에서 매장된다는 분위기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코로나 감염 이후의 사람들의 눈총과 시선이 더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고 한결 같이 말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아이가 어떤 경로로인지는 모르지만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와 어울렸던 모든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족식구들이 다 격리대상에 올라왔습니다. 불행하게도 한 아이가 추가로 감염되었고 그 아이의 부모도 감염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부모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과 그 주변의 모든 가게가 다 사업장을 닫고 2주간 기다려야 합니다. 2주간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사업주들은 하나같이 다 분노의 눈으로 감염이 된 이웃 사업자를 볼 뿐만 아니라 짜증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감염된 이웃을 향해 적대감과 분노를 가지도록 만들어가는 방역정책을 통해 그 열매를 ‘K-방역’이라고 자랑할지는 모르지만 그 뒷면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인간성의 물살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더 깊이 점검할 때입니다.

누가 바이러스에 걸리고 싶었겠습니까? 피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감염 가능성 때문에 2주 동안 자가격리되었던 사람들은 행여라도 자신들보다 그 누군가가 감염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은 고민과 불안감의 기간이었다고 한결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라면 감염된 이웃을 따뜻하게 이해해 주고 받아 주도록 국민들을 이끌고 지도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다가는 바이러스가 사라지기 전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간성이 먼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초월하여 아픈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주고 함께 이해하고 이겨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그리워집니다.

thechoi82@yahoo.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986-4400 (대표)
· Fax (718)986-0074 (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h2>서부(CA) 교회안내</h2>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대학: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fgusa@yahoo.com / www.lafgoc.com Tel. (323)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영락교회</p> <p>담임목사: 박은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말씀묵상(월-금): 오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p>		<p>나침반교회</p> <p>담임목사: 민경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30 토요일한국교회: 오전 9:00</p> <p>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20 영아권(장소:KDC, 침평동침평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예배: 오후 1:20 영아권(장소:KDC, 침평동침평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계속해서 흡사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559-7728,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머무는교회</p> <p>담임목사: 김문수</p> <p>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우일교회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수요일연합소)</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영아(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30</p> <p>Tel. (213)381-2202, www.mj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217</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요</p> <p>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e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p> <p>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엘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p> <p>원장: 박운송 목사</p> <p>(LA)복음화전교회 협동목사 성서사역: (월-금) 오전 9:45-10:45(30분) 사역사역: 1. 영성사역 2. 가정사역 3. 청소년사역 4. 해외사역</p> <p>http://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새가족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p> <p>Tel. (714)6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새은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반)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사역: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d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을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저녁 8:00 목요일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p> <p>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rtone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토 M 배 배: 오전 9:45(11월)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핼(PIM)선교회, 교회</p> <p>담임목사: 이훈우</p> <p>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한국어예배: 오후 1:00 헌양부: 오전 11:00</p> <p>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p>		<p>하늘소망교회</p> <p>담임목사: 김력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수요일예배: '영성경의' 임재기도회 오전 9:30 오후 7:00</p> <p>Tel: (213)500-2948, dock.kim@bka.edu 3416 W. 1st St.,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986-4400 Fax. (718)9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는다면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안시가 한국교회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따라

서 기도를 해야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입니다. 바빠도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 매우 바쁘셨지만 늘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바쁠수록 먼저 시간을 내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쉬지 말고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의 불을 붙이세요.

셋째,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통곡하는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울고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녀의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아무런 기도나 요청을 못하고 울고만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은 눈물의 기도를 올려 드리는 우리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시길 것입니다.

성도의 눈물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환난 날에 나

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시50:15). 눈물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를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롬8:27).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시작 전, 먼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12제자를 뽑기 전, 5천명을 먹이시기 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변화 되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장차 고난당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주의 나라

세우는 교회, 주의 나라 세우는 가정’이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예수인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피 값으로 사신 교회인 우리들은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이 예수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 인종간의 갈등, 고립과 질병,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로 뭉쳐야 합니다.

‘나의 영적 돌파구를 위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나의 자녀를 위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사역과 임직을 위해’, ‘코로나 19로 아파하는 성도들과 이 땅을 위해’, ‘함께’(Together) 기도해야 합니

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사태를 종식할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또한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번성했듯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가정, 교회, 지역사회로 흘러넘치도록 기도합시다.

푸/른/초/장

한세영 목사

(워싱턴 메시아장로교회)



들고 나가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들 일행을 혼인잔치로 인도한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처녀’란 신부가 아닌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들을 가리키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의 숫자가 ‘열 명’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숫자 ‘10’은 ‘완전’을 상징하기에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무엇보다도 ‘10’명은 1)하나의 유대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인원이고 2)여러 종교 집회를 위한 정족 인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열 처녀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양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전히 믿음을 기다리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교회의 멤버십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며, 또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잃지 않고 때를 직시함으로 매일 주님 뜻을 준비하며 이에 늘 절제하며 항상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인데, 그들은 환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어떤 핍박이 와도 주를 향한 그들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재앙이 왔다고 해서 나타내고 태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전히 믿음을 기다리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구원을 얻는 참된 신앙생활이란 결코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교회활동을 하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 그것은 성령을 통해 생명력이 넘쳐나는 믿음과, 주님께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항상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신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문을 보면 그 신앙은 누구에게나 전할 수도 있고 배풀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같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내가 천국에 간다고 내가 그 아내 치맛자락을 붙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나의 기름은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정이 식어지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평안할 때에는 잘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재앙이 오면, 분명하게 이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에 진정한 성도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준비하여,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어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믿음이 충만하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때가 말세임을 직시하심으로 더욱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욱 경성하여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성령 충만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syhan91@hotmail.com

그 때에

마태복음 25장 1-13절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그 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문은 가장 먼저 ‘그 때’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그때’는 이 앞장, 24장에서 말씀한 종말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종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종말이라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14절을 보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때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니라는 것인데, 가장 확실한 세상 끝 날은 오직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이방인의 총명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표현으로 사도바울을 통해서도 증거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미전도종족들이 언제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촌에는 약 1만1천개 정도의 종족이 있고, 거의 7천개의 언어가 있는데, 이 가운데 아직도 4,800개의 미개척 미전도종족이 있고,

로 말하는 지진과 기근과 흉수와 가뭄과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 빈번하고, 또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두 번째 교훈은, 등과 기름을 반드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 공식적으로 혼인잔치는 신랑의 집에서 며칠간 치러지는데, 신랑은 몇몇 친구들과 자기 집을 떠나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가서, 여러 예식을 마치고, 해가 질 즈음에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저녁 무렵부터 등을

이 모든 사람이 다 재림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10명 중 5명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말은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말세의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며,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본문은 말세에는 슬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슬기’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지혜롭고 준비된 행동을 스스로 조절해 나가며, 매사에 신실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삶을 절제하며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잘 준비하여 한다는 것인데, 구원을 얻는 참 성도는 결코 형식적인 신앙생

장애가 신앙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지 않는 언제나 성실하고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예수님은 이런 신앙의 사람들은 말세의 교회 안에서 10명 가운데 5명이라는 것이고, 교회의 구원도 단지 50%라는 것인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름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기름은 성도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통하던 방법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단순히 현상유지를 하려고 돌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낭비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짜 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워두고 있다는 것이다.

(13면으로 계속)

다음 일주일 일 발견하려 시도하고 시험

(1면에서 계속)

“교회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온라인이 뉴노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2천년의 역사 동안 전염병의 대유행이 있어왔지만 그것들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가 불가항력적으로 대면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다시 모이기를 매우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가 이끄는 교회는 대규모 대면 모임을 재개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여러 개의 대형 강당, 수백 명의 전문화된 스테프, 익숙한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수천의 교인들.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압력은 엄청나다.

3.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교회지도자

세 번째는 이번 일을 향후 50년 동안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보는 유형의 지도자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전도와 제자도의 관점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지금 배우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살아남으려는 자 △다시 돌아가려는 자 △임기응변으로 잘 대처하는 자

향후 몇 년을 위한 더욱 새롭고 효과적인 교회모형을 만들 수 있을지 질문하고 고민한다.

나는 오늘 아침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한 곳의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단지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

의 다른 교회들과도 협력해 단순히 모임을 재개하는 것 이상의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위기가 지나간 후에 사람들은 대개 다시 예전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형식으로, 옛날에

배운 대로, 지키는 대로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를 할 때의 기억이다. 장교들은 여러 출신들이 함께 BOQ 생활을 하게 되는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육사출신 장교들의 생활 모습이었다. 모든 육사출신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함께 근무했던 선임 장교는 여타 출신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겨울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영하 20도를 오가는 금학산을 뛰어 오르지를 않나, 겨울에 고양이 세수에 급급한 이들과 달리 냉수마찰을 하는 등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출근길에 겨우 눈을 뜨고 오가는 중에 그와 눈을 마주치면 절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역시 다르네, 확실하 별 달겠구나!' 육사 4년 동안 배운 것을 현실 부대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의 삶을 지키고 가꾸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참 멋지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들이 새롭다.

이처럼 일반 세상에서도 배운 대로 행하고, 지키는 것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통교회와 신앙의 컬러가 다르지만 예전 펜실베이니아주 랭케스터의 아미쉬 마을사람들이 보여준 행동들도 아름다운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기억들이

다윗, 아름다운 사람

성경은 다윗을 향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증거한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대표적인 사건이 엔게디 황무지 동굴사건이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찾아온 사울이 용변을 위해 굴로 들어갔다. 그곳은 석회암 동굴들이 많은 곳인데, 어떤 굴들은 수백 명 혹은 수천 명 들어갈 수 있는 큰 굴들이었다. 사울의 용변 보는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곳에 박쥐처럼 숨어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장 해제된 사울을 죽이고,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될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한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아니하고 사울의 겂옷 자락을 가만히 베는 것으로도 마음이 찢리는 아픔을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다윗은 자기 눈앞에서 자신의 고생을 끝내고,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더불어 이것은 자애매한 살인이 아니었다. 저들의 표현으

호와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이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전제 앞에서 다윗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당성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참모들의 조언 등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행위를 결정하게 만드는 그 영혼이 품은 내용물,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 인생의 진퇴를 결정하는 준거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영광이다.

세상이 아무리 삶을 뿌리 채 흔들고 아프게 하여도, 그래서 세상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도, 우리는 결코 쉽게 마음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아야 한다.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의 존귀함을 지키는 길이 된다. 세상이 요구하는 광야의 들짐승 같은 약육강식의 생존법을 거부하고, 말씀에 대한 영적 더듬이를 예민하게 제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을 세상에 매매하지 않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기를 원하신다.

은혜를 받은 방문객이 헌납한 결과가 수양관과 묘지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결과요, 열매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스스로 지키는 존귀함

다윗에게 사울은 복수가 마땅한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의 내용물에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었다. 다윗은 오직 그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맴으로써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한 것이다. 나의 삶의 기준이 주님, 주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무리 거친 세상을 산다하여도 그 삶의 존귀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여집사님이 집안경제에 어려움이 생겨서 세상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게 살림뿐이어서 가사도우미, 파출부 가정부 일을 시작했다. 처음 하는 세상일이라서 사장과 출입하는 집 주인들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이다. "주께 하듯 하라." 그때부터 이 여집사님은 직장의 주인인 사장님에게도 말씀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출가한 두 딸을 가진 젊은 권사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늘 기도하는 내용이 비슷해 단조롭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게 좋은지요? 성경의 좋은 축복 기도문이 있으면 배우기 원합니다.
-오렌지에서 강 권사

A: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사명은 자녀들을 위해 평생 기도하는 것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자녀들의 삶이 날마다 영적 공격을 수없이 받기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저도 새벽마다 두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문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으나 가장 좋은 것 하나만 소개하면 창 49:22-25절의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한 놀라운 축복기도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답을 넘었도다...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창49:22-25). 이 구절을 아예 외워버리십시오.

자녀를 위한 대표적 축복기도문은 창49:22-25

여기서 무성한 가지란 영어성경이 더 잘 표현했는데 "a fruitful vine"으로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를 말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샘 곁에(near a spring) 심겼습니다. 그 가지가 크게 자라서 답을 넘었다는 것은 가나안 국경을 넘어 애굽까지 미쳤다는 것인데 창대의 복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요한 자산으로 삼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복은 3박자 축복입니다. 첫째가 하늘의 복입니다(blessing of skies above).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예수 잘 믿는 복,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복, 즉 영적 축복을 말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도 해야 하지만 먼저 영적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허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서두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엡1:3)라며 신령한 구원의 복을 먼저 구했습니다. 자녀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60만대 2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60만명을 갖다나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보다 못해 60만명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둘째, 깊은 샘의 복(창49:25)입니다. 옛날 성경은 원천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물이 귀해 샘이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그 물을 먹었습니다. 우물은 재산입니다. 이것은 물질축복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부자 이면서도 은금과 육축이 풍부했습니다(창13:1).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요 부자였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을 구하십시오. 그 이유는 내 자신의 안정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입니다.

셋째는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자녀는 미래의 씨앗입니다.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투자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부모들이 불평하는데 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거친 세상, 아름다운 영혼

- 하나님의 이름, 영광, 사필귀정

다. 어느 날 마을 학교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렸는데, 찰스 로버트라는 사람이 아이들 학교에 총을 난사해서 10명의 아이가 죽고 다쳤고 범인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이 난리가 났었다. 그 이유는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농사 등을 주로 하며 살아가는 철저한 평화주의자들의 마을에도 총기사고가 발생했다면 미국은 도대체 어디가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점을 던져준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사고 이후의 아미쉬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들이었다. 자기들의 인척들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을 잃고 남은 두 딸과 함께 죄인의 가정으로 낙인찍힐 범인의 집을 방문하고 위로한 것이다. 또한 그의 장례식의 조문객의 반 이상이 아미쉬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전국에서 답지한 성급중에서 범인의 가족에게도 똑같은 비율로 전답이 되게 한 것이다. 저들의 마음에도 보통의 감정, 분노가 함께 존재하였을 것인데, 저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따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존귀함을 세상 앞에 증명하는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구닥다리 폐쇄주의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처럼 배운 대로, 지키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 상식을 법을 따라 규모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로는 먼저 애매한 죽음을 요구한 사울에 대한 정당방위이며, 이런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람들의 영적조건도 뒷받침 되었다. 그와 함께하는 참모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하나님은 사울이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미래의 왕은 다윗 자신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사울이 왕으로서 한 일이 무엇인가? 그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 가족과 아이들 85명을 죽이고, 애매한 지역사람들까지 희생양으로 만든 사람이 아닌가? 그는 마땅히 탄핵되어야 하고, 다윗 개인의 원수를 떠나 하나님의 사람을 해친 그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여도 아무런 정당성에 금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들 속에서 맞닥뜨리는 그 어떤 유익과 정당성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의 행위를 붙들어 매는 힘에 지배를 받는다. 자신의 모든 것을 all stop시키고 모든 상황판단을 멈추게 만드는 힘에 붙들린 것이다. 자신의 영혼이 품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의 영혼에 임재하신 성령의 강권하신 은혜가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사울 왕이 아무리 영타리, 방백이 같은 존재라 하여도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조정을 맞추고, 여

삶의 경영원리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나의 삶을 경영하는 원칙이 무엇인가? 나를 가계도하고 멈추게 하는(Go & Stop)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것이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준이 된다. 교회가 10만평 수양관과 묘지를 매입할 때이다. 한국 서울의 대형교회 집사님 부부가 불치병을 고치러 오셨다가 도내이션을 해서 만들어진 장소인데, 그 일의 시작배경이 아주 특별했다. 이곳 식당에서 일하던 분이 타주에서 현재월급의 100불을 더 준다고 하니 미련 없이 칼(?)을 접는 것을 본 충격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칼을 접는다는 말은 요리사가 자기 도구를 챙긴다는 뜻이다.

자신의 영혼과 신앙은 무엇인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사명에 따라 오고가는 것과 멈추는 것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결국 그 영혼의 가치선택 기준은 참 허망한 것이었다. 그때의 충격으로 이민자들이 돈 따라, 형편 따라 미국 50개주를 다 살아 보려면 1년마다 이사를 해야 할 것이고, 결국은 떠돌이 방랑 인생이 되고 만다. 우리는 이곳 알칸사를 나의 휴터로 생각하고, 부초 같은 떠돌이 인생이 되지 않도록 묘지리를 만들자고 주장하던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주님처럼 대하고,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집 주인에게도 말씀순종해서 주께 하듯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 주께 하듯 하며 얼굴에 인상 쓰고, 집안에 우환 있는 사람처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다보니 자연히 웃고 환하고 밝은 얼굴로 모든 이들을 대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훗날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스토리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그분이 받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신은 여전히 비천하고 못났으며, 연약한 무지렁이 인생이고, 자신의 하는 일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천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영혼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고, 주의 말씀이 그 심령을 지배하고 사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곳, 즉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가 자신의 얼굴과 삶을 마침내 존귀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다.

사필귀정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모인 부흥집회를 인도할 때는 간절한 기도와 최선의

열심을 다해 나아가고, 현실목회현장에서는 그런 간절함이 없이 대중 세계 집합처럼 한다 하면 하나님의 책망거리밖에 남을 게 없는 샅군이 되는 것이다. 존귀한 주의 종이, 세상 것들에 마음 팔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스스로 내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작은 수의 성도들과 작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 비록 작고 초라해 보여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탐과 눈물과 정성을 드릴 수 있다면 그 목회자는 화려한 조명아래 박수 받으며 목회하는 그 어떤 목회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다윗은 아들람 거지들의 두목과 같으며 동굴

속에 박쥐처럼 숨어 살아야 할 회현장에서는 그런 간절함이 없이 대중 세계 집합처럼 한다 하면 하나님의 책망거리밖에 남을 게 없는 샅군이 되는 것이다. 존귀한 주의 종이, 세상 것들에 마음 팔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스스로 내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작은 수의 성도들과 작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 비록 작고 초라해 보여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탐과 눈물과 정성을 드릴 수 있다면 그 목회자는 화려한 조명아래 박수 받으며 목회하는 그 어떤 목회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다윗은 아들람 거지들의 두목과 같으며 동굴

종교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프랑스의 샤위야(SHAWIYA)

샤위야인은 알제리 북부 아틀라스 산맥의 오르 고원에 주로 살고 있는 베르베르 목자들이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북아프리카 전 지역을 "마그리브"(Maghrib)라 부른다. 3세기에 로마인들은 이 마그리브의 사람들을 "베르베르"(Berber)라고 불렀는데 이는 "야만인"이란 뜻이다. 베르베르족은 자신들을 "자유롭고 고상한 사람들"이란 뜻으로 "이마지겐"(Imazighen)이라고 지칭한다. 이 말은 베르베르인의 정체성과 민족주의를 가리



켜주는 지시어가 되어왔다. 아틀라스 산맥의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봉우리들은 오랫동안 베르베르인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해왔다. 이 거친 산들은 로마인, 반달족, 비잔틴인, 그리고 아랍인들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줬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서기 670년과 700년 사이에 마그리브를 정복했다. 이민이 베르베르인들 사이에 점점 더 흔한 일이 됐으며, 현재 수백만이 유럽 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거의 173,000명의 샤위야 베르베르인들이 프랑스로 이민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유럽노동시장장은 새로운 노동자들에 대해 문을 닫아버렸다.

삶의 모습

샤위야인은 알제리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호하기위해 일어났던 여러 베르베르 집단 중의 일부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역세고 검소하며 친절하고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자부심이 강하고 민첩하고 끈질기며 충성스럽다고 알려졌다. 특히 독립에 대한 열망이 그들의 문화에 깊이 깔려 있다. 북아프리카에서 샤위야인들은 양과 염소들을 주로 기르는 반 유목민 목자들이다. 겨울에는 가족을 이끌고 따뜻한 평원으로 이동하며 봄과 여름에는 고지대의 목초지로 이동한다. 일자라가 없는 샤위야인들에게 유럽으로의 이민은 한때 선택이 가능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지난 20세기 후반에 있었던 이민규제들로 인해 더 이상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수십만의 이민자들이 프랑스에 큰 샤워야 공동체를 남겨놓았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군인이 된거나 프랑스의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프랑스로 가는 길이었다.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 남게 됐다. 또 다른 사람들은 2차 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에 노동력이 부족할 때 프랑스에 왔다. 최근에는 상인으로 프랑스로 왔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북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의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프랑스 이민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문제, 실업문제들을 포함해 인종차별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생겼다. 처음 이민자들은 주로 남성들로서 낮은 수준의 호스텔에서 살았고 건설노동자, 거리청소부, 광부, 또는 철강회사의 노동자로서 낮은 급료를 받는 일을 하며 살았다. 1974년 경제적 압박의 시작과 함께 많은

프랑스인들이 이 직업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정부는 이민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신앙 샤위야인은 이슬람을 새로운 종교로 받아들였지만 이슬람 이전의 그들의 문화적 의식적인 전통들을 지켜오고 있다. 이슬람의 수용과 아랍식의 방법들을 채택했지만 결코 완전히 그들의 베르베르 문화를 없애지는 못했다. 명목상 그들은 수니파 무슬림이지만 대부분은 코란의 관습이나 중동 이슬람의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 샤위야 사회는 이슬람과 부족을 중심으로 조직돼 있다. 그러나 도시와 시골 공동체 간에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정통파 이슬람이 우세한 반면 시골사회에는 고대 신앙과 관습들이 이슬

람 신앙과 혼합돼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8세기경 아랍의 침략으로 베라베르인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일도록 강요당했다. 그전에 그들의 많은 수는 기독교인이다. 알제리와 모로코의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따를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프랑스에서는 그렇지 않다. 사실 그들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지만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의 수는 계속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베라베르인들은 경제적 밀바다에 있고 인종 편견을 당하고 있다. 기독교인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관용을 프랑스의 베라베르인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통곡의 벽' 앞에도 칸막이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도 칸막이가 설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만들어낸 진풍경이다. 이스라엘에서 사역 중인 유대학연구소장 이강근 목사는 지난 2일 '통곡의 벽도 칸막이 시대'라는 제목의 사진 한 장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지인 통곡의 벽을 배경으로 텅 빈 광장에 칸막이가 설치된 사진이었다. 이 목사는 6일 국민일보와 카카오톡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통곡의 벽 관리소에서 바둑판 칸막이를 설치했다"며 "설치된 지 2개월쯤 됐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경전을 크게 소리 내어 읽고 큰소리로 노래 부르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에게 코로나19는 더 치명적이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아예 성지 출입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100명 안팎의 사람들만 출입시켰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는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해 최대한 감염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런 진풍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고 덧붙혔다. 이 목사가 전한 이스라엘의 상황은 심각하다. 최근 한 달간 거의 매일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엔 하루 최대인 299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주요 산업인 관광도 타격을 입었다. 이 목사는 "지난 몇 달간 국경 및 공항을 폐쇄해 여행객은 전혀 들어오지 못한다"며 "순례객들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교회든 회당이든 모임 인원이 제한되면서 대부분 한인 교회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美 국민 21% "코로나백신 나와도..."

미국 국민 상당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접종을 하지 않거나, 먼저 접종한 다른 사람의 효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서둘러 백신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조기 백신 승인'에 대한 미 국민의 불안이 반영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8일 미 정치전문 매체인 더힐에 따르면 미 CBS 방송이 유고브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미 유권자 24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1%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와도 접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응답자 58%는 자신들이 접종을 받기 전에 먼저 접종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접종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백신이 나오면 무료를 전제로 즉각 접종하겠다고 답한 국민은 2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2.4% 포인트다. 백신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다. 응답자의 65%는 연내에 백신이 나올 경우 이는 시험이 불충분했거나 급하게 나온 결과로 간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5%는 연내에 백신이 나와도 이는 '과격적인 돌파구'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지지층 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77%, 공화당 지지자의 48%가 연내에 나오는 백신은 급하게 나온 결과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더힐은 백신을 접종받겠다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려는 보건 전문가들에게는 큰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27일 주 정부들에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백신이 나올 수 있으니 배포할 준비를 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11월 1일 이전에, 10월에(백신)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미 보건 당국자들은 다음 달 안에 백신이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작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BLM, 마술 숭배하는 반기독교 운동"

미국의 흑인 기독교 방송 진행자가 Black Lives Matter(이하 BLM) 운동이 마술(witchcraft)과 연관돼 있다며, 이 단체와 연합한 기독교인들에게 자신들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2일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기독교 팟캐스트인 '아메리카 패밀리 라디오'의 진행자인 에이브러햄 해밀턴 3세(Abraham Hamilton III)는 지난달 19일 방송에서 BLM의 실체는 '사회 정의 옹호 단체가 아닌 '종교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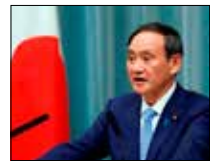


미국가족협회(American Family Association) 공공정책 분석가로 활동 중인 해밀턴은 BLM 운동을 "마르크스주의이자, 반기독교이며, 반가족, 그리고 반인륜단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BLM의 시초에 대해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러시아에서 건너 온 볼셰비키 혁명(Bolshevik Revolution)을 복사, 붙여넣기 하여 미국의 상황에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밀턴은 이 운동의 공동 창시자 중 한 명인 패트리스 컬러스(Patrisse Cullors)가 자신을 "훈련된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묘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컬러스가 영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 대목을 인용했다. 영상에서 컬러스는 "우리는 정기적으로 부르는 영혼들과 매우 친밀해졌다"며 "그들 각각은 다른 존재와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어 "나는 와키샤와 함께 많이 웃는데... 그녀의 몸에서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컬러스가 언급한 여성은 지난 2016년 LA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흑인 여성 와키샤 윌슨(Wakiesha Wilson)을 가리킨다. 해밀턴은 이 대화 속에서 BLM 지도자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소환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고, 이 같은 행위를 통해 단체가 저항하는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밀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소환하는 지도자들이 "요루바족(Yoruba)"의 저술인 "이파(Ifa)"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죽은 영혼들을 소환하고 있다. 이 종교 행위의 기준

중 하나는 조상숭배"이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마술사(Witchcraft)라 부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BLM 공동 창시자인 멜리나 압둘라(Melina Abdulah)는 영상에서 "이 운동이 인종적, 사회적 정의 운동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거의 1년이 걸렸다"며 "우리는 말 그대로 쏟아진 피 위에서 서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은 영적인 운동"이라고 언급했다. 해밀턴은 BLM 운동에서 가장 흔한 구호 중 하나인 "그녀의 이름을 말하라(Say her name)"는 문장도 "죽은 영혼들을 부르는 것"이며 BLM 지도자들은 "그들이 말한 사람들의 이름이 조상의 신이 되었다고 정말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해밀턴은 BLM의 영적 관행을 비판하며 예베소서 6장 12절을 인용, "악의 영들(spiritual wickedness)"이며, 이러한 요술사나 죽은 자의 영을 부르는 일은 신명기 18장이 말한 "주님께 가증한 일(detestable to the Lord)"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BLM운동을 지지하는 일부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단절을 촉구했다.

日 "...올림픽 예정대로 개최"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올림픽·패럴림픽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BBC 방송은 8일 하시모토 장관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도쿄올림픽은 예정대로 내년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시모토 장관은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성공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림픽에 관련된 사람들 모두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선수들도 내년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존 코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도 7일 "코로나19가 있든 없든 올림픽은 내년 예정대로 개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츠 부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은 일본의 개최 목표대로 2011년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도호쿠 대지진의 악몽에서 벗어난 재건과 부흥의 대회가 이제 코로나19를 정복한 대회가 돼야 한다"고 정상 개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당초 올 여름 열릴 예정이던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19 대응행으로 내년으로 연기됐다.



中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유공자를 치하하는 시상대회를 개최하며 "중국 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중대하고 전략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전국 코로나19 방역 표창대회에서 중국의 방역 업무를 총괄한 중난산 공정원 원사에게 공화국 훈장을, 장바이리, 장딩위, 천웨이 공정원 원사에게 인민 영웅 훈장을 수여했다. 시 주석은 이날 표창대회에서 "지난 8개월여 동안 우리 당은 전국 각 민족과 인민을 단결시



키고 이끌어 코로나19와 대전을 치렀다"면서 "거대한 노력을 쏟아부어 코로나19 전쟁에서 중대하고 전략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중국에서 한 달 가까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자축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현재도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중국 인민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생명을 빼앗긴 각국 국민과 함께 아픔을 느끼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또 국제 사회의 "중국 책임론"을 겨냥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은 공개적이고 투명했다"면서 "단 한 명의 환자도 포기하지 않고,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놓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과학연구와 임상치료에 집중해 초기에 핵산 검사키트를 개발하고, 백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전국 농촌과 거주지, 기업, 의료기관, 연구기관, 학교, 군 등 전 분야에서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 효과적으로 코로나19를 억제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되며 초기 전면 봉쇄 조치가 이뤄진 후베이와 우한 지역 의료진과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코로나19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는 중국공산당과 중국 사회주의 제도의 우수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중국의 대국으로서 책임감과 당 전체와 전 국민의 자신감과 자부심, 응집력을 강화했다"고 극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한 시기에 경제 발전의 여러 분야에서 정지 버튼을 눌러졌지만, 인민의 생활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역사와 현실은 모두 우리에게 중국 사회주의 제도를 완벽하고, 국가통치체제와 통치능력을 현대화하는 것만이 위험과 도전의 충격에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中 "기독교 스킨 불법..."

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한국 VOM)는 1일 중국 광시 좡족자치구(Guangxi Autonomous Region)의 한 법원이 기독교인 어머니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기독교인 학부모 판 루첸(Fan Ruzhen)은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홈스쿨링을 시작했다. 그런데 작년 9월 30일, 당국은 무신론 교육을 하는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3일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Beihai)시 인하이(Yin Hai)구 인민법원은, 판은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판결해 정부 당국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판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하이시 인민 중급 법원에 항소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베이하이시 중급 인민 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한국 VOM의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중급 인민 법원은 신앙과 공교육 제도 사이에 모순점이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에서는 부모나 교사가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공산당을 지지하는 무신론 학교에 다녀야 한다"면서 "이는 종교를 가진 어린이들은 무신론적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05. 강태희(1889-1958)

강태희(姜泰熙)는 1889년 7월 23일에 태어났다. 그런데 그가 강화도에서 태어났다고도 하고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에서 태어났다고도 한다. 향리에서 한학을 공부하였고 남양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인천 영학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는 대한제국의 개량운동에 가담하여 옥고를 치르기를 여러 번 하였는데 웅변가로 이름을 날렸다.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그가 1920년에 협성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생이던 1923년 1월 서울 창천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를 시작했고, 1926년 3월에 본교 제12회 졸업생이 된 이듬해 1927년 10월에 서울 중곡교회로 파송받았다. 그 후 그는 유학차 도미했다.

1929년 2월 평신도 회의에 참석한 수는 112명이었고, 3월에 본 회의가 두 번 모였는데 참석 수는 각각 108명과 104명이었으므로 당시 예배 참석수가 적어도 110명 가량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1928년에 이어 1929년은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가 재정이 어려웠던 시



강태희 목사

상황에 도착했다. 그 길로 그는 그해 9월에 미국 뉴저지 매디슨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인 드류신학교 선교대학에 특별학생으로 입학하였다. 그는 2년 6개월간 공부하고 1931년 6월에 본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신학사(BD)학위가 아닌 졸업장을 취득했다.

강태희가 푸르 대학에서 공부하던 1930년 6월에 북미주 대한인 유학생회 동부지방 제5회 대회가 있었는데 그달 8일 오전 10시 반에 30여 명의 한인 유학생이 뉴욕한인교회 예배당에서 있었던 학생예배에서 강태희가 설교를 담당했다. 그는 “왜 떨어지나”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강설하였고, 이후 학생대회 특별찬양대의 합창이 있어서 예배순서가 은혜로웠다고 한다.

이듬해인 1932년 6월 4일과 5일, 양일에 북미주 대한인 유학생회 동부지방 제7회 대회가 뉴욕한인감리교회 예배당에서 있었다. 그는 그해 동부대회 종교부의 부원이었다. 종교부 부장은 강 일이었다고, 또 다른 부원으로는 문찬규, 장석영 그리고 김주환이 있었다. 그해 연회 회장은 김마리아였고, 서기는 김은식과 정일형 등 두 명이였다. 종교부 외에도 재정부, 토의부, 연회부, 사교부, 운동부가 있었고, 위 부서의 부장은 안승화, 김도연, 김세선, 조승학, 그리고 윤순성이었다. 그달 4

였던 서정일, 안현경, 정운서, 정인수, 조석진, 차신호 등과 함께 말씀을 전하였으니 말하자면 설교 목사인 셈이었다. 그가 이곳에서 담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931년 본 교회 평신도회 회장이 이종관이었고 그의 임원으로는 서기 최성대, 재무 민한옥, 임원에 강영복, 서기문, 최백렬, 황원태, 정인수 그리고 김윤배였는데 강태희가 설교하던 때도 이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하와이 감리교회

1930년 푸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변홍규 목사가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제9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그는 만주 선교를 위하여 떠나던 1933년까지 약 2년간 목회했다. 1931년 9월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이듬해 1월에 상해임시정부의 이봉창의 폭탄투입으로 대한독립의 의지를 높이는 상황에서 변홍규 목사는 감리교회 주최로 부흥회를 계획

지만 인생 연륜으로는 열 살이나 많았다.

부흥회는 1932년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두 주간이었다. 강태희 목사의 복음 전파의 대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요한복음 14:6의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그의 부흥회는 하와이 7천여 동포의 갈 길을 인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래서 당시 하와이에 있던 큰 섬 오야후, 하와이, 마우이, 가와이 섬의 한인감리교회의 담임목사인 안창호, 홍한식, 이관목, 임준호, 현 순, 그리고 한인독립교회와 성공회 목회자가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호놀룰루에 가까이 있던 한인들이 참여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와이와 하와이아 한인감리교회 교인과 호놀룰루에 있던 한인독립교회와 성공회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1930년

교인들이 이 부흥회에 참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귀국

한국으로 귀국한 강태희는 서울 중앙교회와 서울 상동교회를 거쳐 1937년에 장사정교회에 부임하면서 연회 부흥 전도 사업 담당자로서 부흥목사가 되어 전국을 무대로 부흥회를 인도했고, 이용도에서 김중우로 이어지는 일제강점기 때의 한국 감리교회의 마지막 부흥사였다. 1944년 3월에 서울 종교교회에 부임한 그가 그 후 인천 내리교회를 섬겼다. 해방되던 그해 11월 조선기독교 남부대회 총무부장이 되었고, 이듬해 1월 경기 교구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그해 6월 그가 중부연회 복흥과 연회장으로 선임되더니 그해 9월 특별총회 감독으로 피선되어 재건과와 합동하던 1949년까지 재직했다. 그는 조선기독교연합회(NCC) 회장도 역임했다. 625동란 중 강태희는 부산으로 피난 가서 거기에서 영도중앙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던 중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병든 몸으로 인천에 돌아와 투병하던 중 1958년 8월 5일에 자택에서 향년 69세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Drew Theological Seminary의 사서 Dr. Mathew Beland가 2020년 1월 9일에 필자에게 보낸 이메일 참조. damien.sohn@gmail.com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1928년에 유학차 도미하던 길에 강태희 목사는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했다. 그런데 민찬호가 담임목사로 목회하던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가 그를 발탁하여 부목사로 청빙했다. 민찬호는 1919년 10월에 본 교회에 부임하여 1929년 3월에 사임했고, 강태희는 그해 6월에 상항으로 이주하던 때까지 본 교회를 섬겼으니 약 1년간으로 보인다.

당시 민찬호가 돌보아야 할 한인기독교회는 하와이 전체에 13개 교회와 9개의 기도처가 있었고, 남녀 아동을 합쳐 총 1,241명이였다. 1926년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는 남자 140명, 여자 100명, 아동 300명 등 총 540명이었으니 강태희 목사는 540명의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의 교인을 심방하는 심방목사였을 것으로 보인다.

1929년 교회 임원은 강태희의 목회에 함께 한 동역자들이다. 전도사에 백낙현, 이상직, 김광현, 전경준, 조석진이었고, 집사에 조석진이였으며, 반장에 안득은, 송경신, 백인숙, 손마리아, 민한옥이었고, 찬미대 대장에 김신실이었고, 찬미대 위원에 김학성이었고, 이사원에 손덕인, 박영호, 서기문, 김성구, 최성대, 박경순, 김경준, 안영찬, 박태선이었고, 평신도 회장에 최흥위, 서기에 차신호, 재무에 김광재였다.

1924년에 예배당을 건축할 때 생긴 교회건축 빚을 대해 갚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담임목사 민찬호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가 어려워 각 지방교회가 특별헌금으로 담당하기로 하고 지방교회에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요청할 지경이었으니 재정부족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1929년 2월 교회 평신도회의는 재정곤란도 곤란이지만 2, 3년만 가면 교회를 부지할 도리가 없으니 경비를 제감하도록 하여 직원의 월급을 삭감하였고, 교회재무와 학생인 오르가니스트의 월급은 아예 삭제했고, 민찬호의 사례비도 50달러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그해 3월에 민찬호의 사임서를 수리하였다.

재정곤란의 교회 분위기에서 강태희의 부목사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유학차 도미했으므로 유학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할 때가 되기도 하였다.

뉴저지 푸르 대학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부목사직을 사임한 강태희는 1929년 6월 10일에

일에 있었던 첫날 모임에는 개회에 이어 사무처리, ‘조선경제발전’에 대한 토의 등이 있었다. 이튿날 5일의 둘째 날 모임은 오전 10시에 학생주최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에서 강태희가 설교를 담당했다. 이후 야유회와 졸업식 축하회 그리고 여흥 등이 이어졌다.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강태희는 위의 동부지방 제7회 대회 직후 한국으로 귀국하던 길에 다시 하와이를 방문했다.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의 담임목사 이용직이 1931년에 사임함으로써 비어 있던 본 교회 강단에서 강태희는 이종관, 김이재 그리고 임두화 등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



스콜 스트리트 선상의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1928년 유학차 도미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서 1년간 사역 1929년 드류신학교 졸업 32년 귀국, 목회와 부흥사로 사역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8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영, 위, 유, 주, 찬양예배: 오전 10:45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기도회: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위성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위, 유, 주, 찬양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9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금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김형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804)560-7500, www.i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수 요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청년예배: 오후 7:45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24)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목사의 소명” (2)

퍼킨스는 목사의 소명의 갱신을 말하며 위해 이사야 6장을 인용하며 이사야의 소명을 확증하는 방법과 소명에 대한 확증으로부터 다루어 나아간다는 것이며, 그 세 가지 내용은 첫째 선지자에게 입한 비전의 영향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 그를 놀라게 하고 낮춘다. 둘째, 그는 다시금 새운 받아 위로를 얻으며, 셋째, 위임을 새롭게 한다는 것으로 요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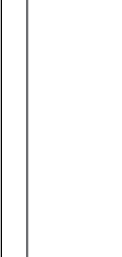
사는 자기 백성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백성과 그들의 죄를 잘 알아야 한다. 목사가 자기 백성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백성의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백성들은 또한 자기의 죄를 먼저 목사에게 고백해야 한다. 무엇보다 목사의 부패와 백성의 부패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언급한다.

목사도 악한 사람들과 살게 되면 그들의 부패에 부분적으로 물들게 된다. 그러기에 인간 본성의 부패는 아주 사악하고 추하며 전염성이 있음을 알고, 목사는 가능한 한 부패하지 않은 사람과 거할 수 있는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목사가 목회자를 구할 때, 경제적인 조건보다는 교인들의 상태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것이 좋다. 목사는 항상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부패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역설한다.

들을 뻔뻔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목사들은 설교 전후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거룩과 겸손함을 꾀해야 한다. 회개 없이 목회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심각한 것이다. 목사의 사역에 열매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성결함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사역에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자신이 회개하고 성결해야 한다.

교회는 목사의 학식만이 아니라 경건을 살피야 한다. 부정한 목사들은 가장 큰 경멸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회개하며 살았던 양심적이고 경건한 목사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것이다. 가톨릭의 수많은 성인들의 전승을 다 거저이다. 무엇보다 목사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전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우울감의 회복

질문)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오손도손 재밌게 살던 가정주부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검은 구름이 서서히 우리 가정을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흔들리더니 마침내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주 가까웠던 지인에 의해, 그리고 이삼 주 지난 것 같습니다. 애들 추스려야 하는데 몸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녹아 없어진다면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될 것 같은 생각이 떠나질 않고요.

중세 심각하면 전문가 도움으로 약물치료 필요

답) 어떤 말로도 위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함께하던 배우자가 갑자기 떠났을 때 그 충격으로 감정의 부재 증세를 보이게 되고 자기연민에 빠지다가 의욕상실과 함께 단절감, 심각한 슬픔, 잠자고 먹는 것의 변화, 기력 상실, 비관적 생각, 급기야는 자살 충동에 빠지면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경우엔 심각한 위험이 따를 수 있기에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먼저 알아봤으면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과수면(15시간 이상), 식욕의 급격한 변화, 의욕과 흥미의 상실, 집중이 어렵고 말과 행실이 느려지면서 무기력함, 죄책감과 더불어 분노, 짜증 등의 증세, 마지막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 정도가 2주 정도 지속된다면 혼자서 싸우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약을 먹거나 심리치료 받을 것을 권합니다.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스트레스 같은 외부적, 환경적인 요인이나 뇌의 세로토닌 감소와 같은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우울증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 가능한 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80-90%가 수 주 이내에 상태가 호전된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아니라도 만사가 허탈하고 슬픔에 가득 찬 기분을 느껴 우울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1)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 절망, 좌절 등으로 신체에도 긴장이 많이 쌓이게 되어 근육들이 움츠러들고 뻣뻣해져 호흡도 거칠고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호흡조절을 함께하는 스트레칭이 우선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태양을 많이 보면 세로토닌 합성에 도움이 된다 하니 편안한 신을 신고 신선한 공기 속을 걷는 것을 권합니다. 식사와 소화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잠을 청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13편으로 계속)

목회사역에 열매 거두려면 먼저 자신이 회개하고 성결해야 참된 위로의 근거와 본질은 죄용서, 목사먼저 체험 있어야

사람들은 목사가 너무 사교적이지 않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목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백성의 공통된 잘못에 영향을 받지 않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훌륭한 목사는 사람들의 부패에 대해 심히 자책한다. 목사가 경건한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주의한 삶을 산다면 그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3)하나님의 임재 선지자의 두려움의 원인은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났던 주를 보았다는 데 있다. 이사야가 자신과 백성의 죄를 본 것과 하나님을 본 것은 이사야가 두려워한 원인에 상호 연관되어 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임의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지만,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한다.

4)실제적인 적용 그래서 퍼킨스는 실제적인 적용을 말한다. 그는 두렵고 떨림 없이 급하게 목사가 되려는 사람에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죄는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게 할 뿐이며, 죄 없는 상태라야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게 된다.

2장 거룩한 위로 이사야가 받는 위로의 본질과 기초는 죄 사함을 받은 것이며, 선지자에게 강한 위로의 다양한 환경을 언급한다.

1)시간-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낙심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 받는 방법이다.

2)대리자-하나님의 위로의 두 번째 배경은 위로하기 위해 다가온 사역자이다. 그 사역자들인 천사들도 등급과 질서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호위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 보

다. 목사에게는 늘 능력으로 충만한 허가 필요하다. 특히 교회와 국가의 죄를 보고도 비판하지 못하는 목사는 숯불을 입술에 대지 못하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이는 그가 국교도로서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였기에 강조가 더해지는 듯하다. 목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허를 가져야 한다.

5)치료의 적용-퍼킨스는 치료의 적용을 언급하며, 목사들은 교리를 청중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참된 위로의 근거와 본질은 죄용서이다. 목사는 무엇보다 마음의 가장 큰 질병인 죄를 진단하고 죄를 없애는 일을 해야 한다. 목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죄 사함의 체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회개와 죄용서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목사들에게 참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younsuklee@hot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갯세마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www.nyget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진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침례: 오후 0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884, www.fkcby.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해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침양예배: 오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침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침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침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경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pcny.org, Tel. (516)387-9840, 98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dog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베이스айд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영양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45 3부 오후 1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공인특별사역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8:30</p> <p>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h4>사랑의동산교회</h4> <p>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p> <p>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30분)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후 1:50(30분) 찬양예배: 오후 3:15(2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침양예배: 화,목,토,일 새벽 7:30 공인특별사역예배: 매월 둘째(목) 오후 7:30</p> <p>Tel. (6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8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원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오후 7:00(영어) 수요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담임목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신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므비보셋을 데려오라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심리학자 William Park는 인간의 마음은 5가지 약에 항상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 5가지는 미움, 두려움, 죄의식, 열등의식, 자기연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열등감은 우리를 괴롭히는 독버섯과 같은 것은 뿌리라고 합니다. 열등감은 우리 스스로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열등감은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들고, 병적으로 탐심을 갖게 만들고, 교만에 사로잡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옛사람의 나쁜 기질이 십자가에 못박히게 되고, 사랑의 사람, 평강의 사람, 겸손하고 친절함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인생을 바꾸어 놓는 때는 때로 하나님은 어떤 충격적인 계기를 통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10에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

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독일에 사는 어떤 유대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늘 친절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쌀쌀맞은 아이였습니다. 남의 잘못은 반드시 지적하는 못된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7살 된 남동생이 텅빈대다가 자꾸 장난감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매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칠칠치 못한 녀석아, 정신 좀 차려!" 그것이 동생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 누구에게든 사랑이 담기지

않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금 하는 말이 서로의 인생에서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쌀쌀하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인생에서 최고의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상대에 대한 존경"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경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시 받을 때 가장 모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전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익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누구도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9장에는 참으로 보기 힘든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찾아 은혜를 베푸는 광경입니다. 아무런 계산이 없는 순수한 사랑의 모습에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는 신선한 섬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눈에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고 장점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을 원수 사울의 손자로 보지 않았고,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 보았기에 그는 왕이 된 후에 므비보셋을 찾아 평생 왕의 상에 함께 앉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토지를 모두 므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신분도 회복시켜주고, 재산도 명에도 회복시켜주었습니다. 삼상18:1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기억하고 므비보셋을 찾아 그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주었습니다. 이런 의리 있는 삶, 관용의 삶을 하 나라는 귀히 보시고 다윗을 더욱 존귀하게 세우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리와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다윗처럼 베푸는 삶, 의리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서 반드시 축복해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더욱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짐을 함께 담당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의리라고 합니다. 요15:13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롬5:8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 하셨습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교인 집에 심방을 갔는데 그 집에는 5살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인형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소녀에게 인형 중에 어느 인형을 제일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니 소녀는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절대 웃으면 안돼요." 목사님이 약속하자 소녀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까맣게 때가 묻고 코는 주저앉고 팔다리는 너털너털하

고 웃도 다 헤어진 낡은 인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이 인형을 좋아하지?" 소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사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목사님의 가슴이 뭉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서 소녀가 한 말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때 묻고 다 떨어지고 너털너털해진 인형같이 되어버린 내 영혼을 끌어안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흘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님은 날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하는 날이 와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 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의리 있는 사랑, 영원토록 변함 없는 사랑을 가슴에 안고 다윗처럼 우리주위에 버려진 므비보셋, 외로운 므비보셋을 찾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songpkak@hotmail.com



KAPC 목회와 신학 포럼 세번째 시간이 진행됐다

목회자의 독서와 말씀 묵상 '주제 KAPC 목회와 신학' 세번째 포럼, 강사 강영안 교수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가 주최한 목회와 신학 포럼 세 번째 포럼이 9월 1일 오후 5시(동부시간 오후 8시) 줌미팅으로 열렸다. 강영안 교수(미국 칼빈신학교 철학신학교수)가 '목회자의 독서와 말씀 묵상'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강영안 교수는 "첫째,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며 읽는가?"라며 "읽기는 문자에서 출발한다. 어떤 읽기라도 모든 읽기에 등장하는 공통적인 것은 드러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읽어내는 것이 읽는

것이다. 글자로 쓰여진 것은 어떤 의도로 쓰여진 것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둘째, 목회자의 읽기가 읽는다는 것에 대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라며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를 통해 섬김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자다. 목사는 신학자의 성경읽기와 하나님 백성의 성경읽기 사이에 있다. 따라서 학자들이 읽는 방식으로 온전하게 읽고 성도들이 일상 삶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던 그 자리에서 성경 읽는 방식으로 온전히 읽어 유기적 방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셋째, 토마스아퀴나스 신학대전의 구조는 질문구조처럼 질문에서 출발해서 여러 답변 얻고 결론 도출하고 제기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따져보고 따라보고 가려내는 일이다. 참과 거짓, 옥석을 고르는 것과 마음속뿐만 아니라 겉으로 입으로 말하고 활자로 기록된 것을 읽고 또 읽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말씀을 먹는 것처럼 읽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강영안 교수는 "율법의 핵심을 어떻게 읽느냐고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물었을 때, 율법교사는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이야기했다. 예수님은 그 답이 옳다고 하시며 가서 행하라 그러면 영생 누릴 것이라 하셨다. 성경을 읽었다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사랑 교회의 크기 생각안하고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성경읽기 목적과 해석방법이다. 성경을 한번을 읽더라도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하다"며 "말씀은 읽은 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제대로 읽는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PGM선교회 제5회 PGM 선교사집중훈련은 온라인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진행...19명 수료 11명 파송 PGM선교회 제5회 PGM 선교사집중훈련

PGM선교회(국제대표 호성기 목사)가 언택트(Untact) 시대에 맞춰 올해 제 5회 PGM 선교사집중훈련을 온라인훈련으로 실시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한국, C국, 미국 뉴저지, 노스 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텍사스에서 모인 12unit 19명의 훈련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느 때부터 뜨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중 6unit 8명은 8월 13-21일 1차 훈련을 마치고 수료했으며, 6unit 11명은 28일까지 진행된 파송훈련을 마치고 PGM 선교사로 파송됐다. 파송된 6unit 11명은 뉴질랜드, 미국 오스틴, 한국, 태국, 스페인, C국으로의 료전전문인선교사 4명, 교회개혁전 전문인선교사 2명, 교육전문인선교사 1명으로 파송됐다. PGM 선교사집중훈련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헌신을

가다리는 선교 헌신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Here & Now 선교사 및 해외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5회에 걸친 PGM 선교사집중훈련을 통해서 83명의 PGM 선교사를 파송하고 27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비록 모든 훈련과 수료 및 파송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번 훈련에는 PGM 핵심가치 강의로 국제대표인 호성기 목사의 선교의 제4물결을 시작으로 고대인 목사의 성경중단중심선교, 김영민 목사의 디아스포라중심선교, 박상수 선교사의 Here&Now중심선교, 레이 김 선교사의 전문인중심선교, 정준영 선교사의 지역교회중심선교, 고대인 목사의 교회설립&땅끝중심선교가 강의됐다.

또 양용태 선교사의 그리스 난민선교, 이민재 선교사의 QT, 현영선교사의 일터선교, 김현영 선교사의 전문인선교사제와 조영태 선교사, 존박 선교사, 거스 김 목사의 웨일즈선교, 양충언 목사의 히스패닉 사역, 이태후 선교사의 빈민선교, 함춘환 선교사의 인도네시아선교, 데이비드 김&수산 김 선교사의 일대일제자양육 등 PGM 선교사들의 선교사태가 발표됐다. 이어 고윤 목사(PGM정책이사, 뉴욕하은교회 담임)의 선교사의 정체성, 김은범 목사(PGM 정책이사,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 담임)의 선교사의 영성 선교특강, 고대인 목사(Antioch All Nations Church 담임)의 전도세미나로 진행됐다. 28일 수료 및 파송식에서는 모든 훈련생들이 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들은 모든 훈련내용에 만족하며 멀리가지 못하지만 내 가정, 직장, 지역사회가 선교지임을 깨닫고 지역교회에서 헌신하며, 삶의 현장 Here&Now에서 선교사로 살 것을 다짐했다. PGM선교회는 팬데믹 시대로 인한 STOP 사인 앞에 멈추지 않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뜻을 좇아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교회로의 회복을 돕고, 교회 내 평신도들을 깨워 훈련함으로 마지막 때에 선교의 동력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PGM선교회>

'유튜브의 모든 것' 강사 문석진 목사

미주기독교미디어그룹 씨존(C-Zone-Christian Zone-대표 문석진 목사)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무료강좌 95기 둘째 날 강의를 9월 3일 '유튜브의 모든 것'이란 제목으로 문석진 목사를 강사로 열렸다. 강의는 이날 오후 8시부터 9시30분까지 90분 동안 줌(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열렸다. 문석진 목사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유튜브 계정은 구글에 들어가 먼저 구글계정(@gmail.com)을 개설하고 나서 유튜브앱에서 그 계정을 유튜브 계정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 목사는 이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법, 추천 영상 보는 법, 유튜브 중지시켰다 다시 보는 법, 빨리 보는 법, 다시 돌아가는 법, 광고 건너뛰기, 조회 수 클릭하기, 동영상 저장하는 법, 유튜브를 카톡 등으로 공유하는 법, 영상보기 조절법, 나중에 볼 동영상 목록보기, 보관함 보기, 최근 동영상 보기

등을 강의했다. 문 목사는 계속해서 "내가 본 히스토리 보기, 기록 삭제법, 기록관리에서 지우기, 기록 및 개인정보 보기, 시청기록 일시중지-검색기록 일시중지하는 법, 영상마다 관리하는 메뉴보기, 나중에 볼 동영상을 보관함에 넣었다가 순서대로 자동으로 보기" 등과 "유튜버가 되어 유튜브를 내보내면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들어오다가 언젠가는 대박도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마지막으로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 소위 대박이 터지면 혼자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때엔 편집자나 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브랜드널이 유용하다"며 "유튜버가 되는 길은 남이 뭐라 하든 열심히 해야 한다. 지금 유튜브에 대한 모든 것, 강의는 편집해서 유튜브로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마트폰 95기 무료강좌는 9월 10일에도 계속됐다. 등록은 회당 10달러로 할인하며 강의료는 무료다. 등록비는 전액 뉴

욕기독교방송(CBSN) 선교후원금으로 사용된다. ▲문의: (718)414-4848, cbsnny@gmail.com <기사제공: 씨존>

이우혁 이혜정 부부 10만 달러 쾌척 한인가정상담소의 시니어, 저소득층, 서류미비 한인지원 위해

팔로스버디스에 거주하는 이우혁 이혜정 부부가 지난 9월 2일 한인가정상담소를 찾아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인들을 위해 10만 달러를 기부했다. 후원자 이씨 부부는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몸이 불편해

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시니어, 저소득층, 서류미비 한인들을 위해 한인가정상담소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인들을 위해 10만 달러를 기부했다. 후원자 이씨 부부는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몸이 불편해

그랜트 체류신분이나 보험여부 등의 제약으로 서류미비자나 무보험자, 저소득층 한인들이 수혜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이우혁 이혜정 부부처럼 건강한 한인가정을 위해 마음을 써 주시는 한인 1세대 덕분에 신분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혁 후원자는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힘들어 하시는 한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부부가 함께 뜻을 모았다"며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런칭할 예정이다. ▲문의: 이미리 홍보팀장 (213)235-4848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굿네이버스USA '굿워터 프로젝트' 실시 잠비아 아동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USA(회장 이일하, kr.goodneighbors.us)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든 아프리카 잠비아 아동의 감염 예방을 돕기 위한 '굿워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굿네이버스USA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NGO로 케리포니아에 미주 본부를 두고 있으며 35개 저개발 국가에서 해외구호개발 및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개발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9년 UN 세계물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지역은 사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굿네이버스 잠비아 이재웅 지부장은 "잠비아는 사실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이다.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깨끗한 물을 지원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의 후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5,200달러로 잠비아 아이들의 학교에 우물 뿐 아니라 물탱크와 식수대, 그리고 화장실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굿네이버스USA 김재학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10면으로 계속>

교계 기사판

센터사역원 LA 3기 전문강사스쿨 개강

2020년 '어? 성경이 어려워지네' 전문강사스쿨이 9월 14일(월)부터 개강된다. 성경광 과정을 수료한 분으로 성경강교사나 성경일독을 가르치고자 하는 이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의는 2021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대면 수업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등록금은 800달러. 현재 사역중인 목사, 선교사, 전도사, 사모, 신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문의: (213)500-2948 김덕수 목사(LA지부장), (213)700-1709 장재영목사(LA지부 총무)

치매 가족 지원 화상모임 시작

소망사사이터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치매 가족 지원 화상모임을 다시 시작한다. 그동안 플러튼과 애너하임 등 5곳에서 진행했던 지원 모임은 팬데믹으로 잠정 중단됐다. 한 달에 1회 이 지원모임을 통해 가족 간병인들은 상호간에 정서적인 지원, 치매에 관한 교육, 그리고 간병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심리적 치유를 얻을 수 있다.

▲문의: (562)977-4580 somang@somangociety.org

뉴라이프교회 제19회 장학생 모집

시카고 뉴라이프교회가 2020년 제 19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민족으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며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 재학생 중 대학원생은 최소 8학점, 대학생은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 GPA가 B 이상 되어야 한다. 선발인원은 7명이며 각 1명당 1500달러를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본교회 소정양식, www.newlife-chicago.or에서 다운), 신앙간증문 및 비전서(2페이지 이하), 추천서 2부(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성적증명서. 응모마감은 10월 31일이며 발표는 12월 13일이다.

▲문의: (847)0359-5200 newlifechurchscholarship@gmail.com

2020년 2개 교회 장학생 발표

인랜드교회 18명, 토랜스제일장로교회 8명

인랜드교회(담임 안환 목사)와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가 2020년도 장학생 수혜자를 발표했다.

인랜드교회는 지난 6월 20일 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해 우수한 인재로서 장래 하나님의 사업 또는 사회에 기여할 바가 기대되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신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67명 중 18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장학금은 △인랜드교인 장학생 2명 △개혁신학 신학교 장학생 8명 △해의 선교사/PCA 작은

교회 목사자녀 장학생 8명에게 지급됐다.

토랜스제일장로교회는 이 땅의 모든 이민교회들이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섬기고자 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을 했으며 지난 7월 12일 신청을 마감하고 총 8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남침례신학교, 탈북, 에모리신학교, 개혁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 리버티신학교 목회학석사(M. Div) 재학생들이다.

(박준호 기자)

정부회장 후보자격 확대, 회비인상 등

뉴욕목사회 임시총회 열고 회칙개정안 통과

뉴욕목사회가 지난 9월 7일 임시총회를 열고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전 10시30분 알리프드 파크에서 회칙개정을 위해 열린 이날 48회 회장 이준성 목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목사님들을 위로할 겸 야외에서 임시총회를 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러 범규분과위원장 유상열 목사가 개정안 전반에 걸친 설명을 한 후 회장이 축조하면서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임원자격 강화, 정부회장 후보자 자격 확대, 실행위원회 개설, 회비 인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2장 회원자격: 총회불참 3년 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총회 연 5년 이상 무단 불참자는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 결의로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명



뉴욕목사회 임시총회 참석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기념촬영에 임했다.

한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분회 임원은 가입 3년 이상 된 자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감사위원회(3인)와 실행위원회(임원 및 분과위원)를 신설한다.

△제4장 선거 및 임기: 정부회장 후보는 뉴욕지구에서 목사로 만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이 항은 원래 담임목사로 제한하던 것을 모든 목사로 확대했다). 또 소속교단 추천서를 노회소속 증명서로 개정했다.

제6장 재정: 연회비를 70달러(기존 50달러)로, 제9장 부칙: 회칙개정은 임시 및 정기총

회에서 재석회원(기존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개정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서기 이기용 목사 인도로 기도 박시훈 목사, 설교 정순원 목사(전회장), 축도 한재홍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정순원 목사(빛과소공교회)는 "세움 받은 자의 총성"(갈1:11-24)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떡함 받은 우리는 첫째, 부름 받은 자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둘째, 과감한 전진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셋째, 신령한 은혜의 결단을 함으로 능력이 되어 한다"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더 예배드리며 코비드19을 이기는 목사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교협이 구국기도회를 마치고 물품배부에 앞서 회장 장동신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당에서 드리는 구국기도회'

뉴저지교협, 현장예배 예방물품 나눔사역 진행

뉴저지교협(회장 장동신 목사)이 지난 2일 '마당에서 드리는 구국기도회'를 개최했다. 33회기 마지막 사업으로 기도회 후에 참석회원들에게 현장예배 예방물품 나눔사역도 진행했다.

회장 장동신 목사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2차에 걸쳐 5만 달러를 모금해 후원을 신청한 교회들에게 나눠준데 신청교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모두들 더 힘든 교회를 도우라는 의도임을 알고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장동신 목사는 구국기도회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예정됐던 호산나 대회, 광복 75주년과 6.25 70주년 기도회, 청교도 미국도착 400주년 집회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오늘 구국기도회를 같이 열게 됐다"고 소개했다.

오후 3시 뉴저지연합교회(담임 목사) 파킹랏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 기도회는 부회장 최준호 목사 인도로 찬양 박준용 목사(우리사랑의교회), 대표기도 배광수 장로(부회장, 뉴저지연합교회), 성경봉독 김근철 장로(회계, 오늘의목양교회), 말씀선포 양춘길 목사(23대 회장, 필립스신학교) 순서로 진행됐다.

양춘길 목사는 다니엘서 9장 3-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 속 에서 교회가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지도자의 위치가 어렵지만 해답은

하나님과과의 관계회복이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범죄를 자백하고,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부 기도회는 기록회계 송호민 목사(한성개혁교회) 인도로 찬양 이준규 목사(수정교회), △회개와 부흥을 위하여 이의철 목사(29대 회장, 은혜제일교회) △미국과 뉴저지한인교회를 위하여 윤명호 목사(31대 회장, 동산교회)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홍인석 목사(32대 회장, 하늘문교회), 축도 이병준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3부는 총무 육민호 목사(주소원교회) 사회로 장동신 목사의 회장인사 후 감사패 전달과 후원물품 전달이 있었다. 박인갑 목사(32대 총무, 새방주교회)가 나눔 소감을 언급한 후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물품을 나눴다.

물품은 580달러 상당의 현장예배 예방용품(손세정제 60병, 손세정 티슈 100봉지, 비접촉 체온 측정기 및 삼각대)으로 75세트를 배부했다.

배부대상은 56개 한인교회, 한인밀집 타운 관공서(경찰서와 소방서 등), 병원 및 한인사역단체들이다. 단체는 패밀러 인터치, 네이버 플러스, 밀알선교단, 뉴욕상조회, 뉴저지상조회, 상록회, 잉글우드 병원, 홀리네임 병원, KCCC, 뉴저지한인회 등이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목사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존중과 인정받는 목사회" 신임 이의철 회장

뉴저지목사회 정기총회, 부회장 윤명호 목사

뉴저지한인목사회 제11회 정기총회가 9월 1일 오전 11시 뉴저지 수정교회(담임 이준규 목사)에서 열려 회장에 이의철 목사(뉴저지은혜제일교회), 부회장에 윤명호 목사(뉴저지동산교회)가 선임됐다.

부회장 이의철 목사는 회장으로 추대되며 취임인사를 통해 "뉴저지목사회는 몇몇이 모여 시작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많은 발전을 했다. 11회기를 시작하며 지난 10년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의 첫발을 내딛는 것 같아서 사명이 중차대하다는 생각을 갖는다"며 새로운 10년을 열어나가기 위한 △사업 방향으로 회원 간의 화합을 강조하고 △존중받으며 인정받는 목사회 △교협과 협조하는 목사회를 강조했다.

이의철 목사는 뉴저지교협 회장을 역임했으며, 소속교단인 미주성결교회 총회장과 미주성결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이의철 목사 인도로 체육분과 이준규 목사가 찬양인도를, 총무 김동권 목사(새사람교회)가 기도과 광고를, 목회분과 백형두 목사(갈보리순복음교회)가 성경봉독을, 전 회장 김중윤 목사(푸른초장교회)가 설교를, 회계 박인갑 목사(새방주교회)가 헌금기도를,

김정문 목사(성은장로교회 원로 목사)가 축도를 담당했다.

김중윤 목사는 골로새서 3장 14절과 17절을 본문으로 "말에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뉴저지목사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2부 정기총회는 회장 유병우 목사의 사회로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채택, 신입회원 가입인준, 전회의록 낭독, 사업 및 행사보고, 산하 단체장 인사 및 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임원선출, 회칙 수정 및 개정, 친구임원 인사 및 교체, 전임회장 이임사, 신임회장 취임사, 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됐다.

회칙개정은 회칙 제12조의 "정기총회는 매년 5월 중에..."를 "정기총회는 매년 9월 중에..."로, 제15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부터 익년 4월까지로 한다"를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했다.

이날 신입회원으로 김영록 목사(선교사), 박효숙 목사, 이영만 목사가 인사했다.

한편 6개주 한인목사회 체육대회를 준비해온 김태수 목사는 "2020년 대회가 개최되지 못해 2021년 대회를 뉴저지목사회가 주관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세인트프란시스병원, 뉴욕가정상담소에 PPE 기부

롱아일랜드 로즐리에 위치한 세인트프란시스병원(St. Francis Hospital)이 8월 31일 뉴욕가정상담소(KAFSC, 이지혜 소장)에 마스크, 일회용 장갑, 손 소독제, 레이저 체온계 등 개인보호용품(PPE)을 전달했다. 병원 캐슬린 김 퀸즈전략디렉터는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협력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사진). 이번 퀸즈 나눔 캠페인은 총 세 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상담이나 헬트 등에 관한 문의는 24시간 핫라인(718-460-3800)으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뉴욕가정상담소)



유해림 음악감독팀 콘서트 영상이 제작되고 있다.

이노비 버츄얼 아웃리치콘서트 재개

문화복지 NGO 이노비(EnoB: Innovative Bridge)가 코비드19으로 중단됐던 아웃리치콘서트 프로그램을 재개한다.

2006년 뉴욕에서 설립돼 14년간 환자, 장애인, 양로원 거주 어르신 등 소외된 곳을 찾아가 무료음악회를 열어왔던 이노비는 올 한해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당분간 불가한만큼 상황이 안전해질 때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촬영한 콘서트 영상을 전달하는 버츄얼 아웃리치 콘서트 시리즈를 시작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메조소프라노 박영경이 음악감독을 맡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정단원인 바리톤 이요한과 소프라노 조슬기, 그리고 피아니스트 백성인이 참여해 가곡과 미국민요, 귀에

익은 클래식곡과 영화음악 등을 각각 한인과 다민족들을 위해 2회의 콘서트를 준비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싱어송라이터 유해림이 음악감독을 맡아 기타리스트 정재영, 피아노에 정희주, 베이스리스트 박정환이 참여해 귀에 익은 팝송과 가요, 트로트를 재즈로 편곡해 위로를 주는 힐링 콘서트를 2회 분량 준비했고, 두 프로그램 모두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 안전수칙을 지켜 촬영을 마쳤다.

이 콘서트 시리즈는 뉴욕나눔재단, 재외동포재단, 조파운데이션과 NV팩토리의 후원과 협연으로 진행된다.

▲후원문의: enobinc@gmail.com, (212)239-4438

(기사제공: 이노비)

굿네이버스USA ...

(9면에서 계속)

그런데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잠비아와 같은 곳에서의 바이러스 감염은 더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금씩 힘을 합친다면 바이러스 전파를 막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매일 10달러씩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사람 1000명이 모이면 아프리카 잠비아에 1년에 20개가 넘는 우물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 신청은 657-256-7329로 이름과 주소를 문자를 보내면 된다. 자세한 것은 굿네이버스 웹사이트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후원 신청이 가능하다.

▲후원 문의: (877)499-9898, info@goodneighbors.us (기사제공: 굿네이버스USA)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18)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4) 청교도(淸教徒, Puritans)들은 성경적 개혁(Biblical Reformed)을 이루려고 한 자들이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18세기에 대각성(大覺醒) 운동을 주도하면서 부흥운동에 앞장을 섰던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는 왜! 청교도를 존중(尊重)하는가를 간명(肝銘)하게 피력했다.

“청교도들은 환하게 밝히면서 타오르는 불꽃들이었다. 시골 창고에서나 들판에서나, 큰 길에서나 산울타리에서나, 그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권위(權威)를 갖고 설교(敎)했다. 비록 그들은 죽었을지라도 그들의 저술(著述)들은 여전히 말하고 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은 감동적인 어조로 동참하고 있다.”

초기 청교도인 존 쥬웰(John Jewel, 1552-1571)은 성경에 관하여 설명하기를 “성경의 신적 기원(起源)과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能力)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결과적으로 말씀에 따라서 더욱 경건(敬虔)해진다”라고 말했다.

청교도들은 교회개혁의 우선순위로 영국교회 안에 남아 있는 미신(迷信)적인 요소를 제거(除去)하는 것으로 삼았다. 영국교회 안에서 시행되는 십자가 성호(聖號)를 긋는 행위, 산파에 의해 유아세례, 견신례, 성찬상 앞에서 무릎 꿇는 행위, 성찬식에 사용한 떡을 치료제로 환자에게 주는 것, 해산 후 여인의 정결예식, 사제나 사면과 같은 단어의 남용, 성자들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예수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무릎 꿇는 행위는 미신적 이요, 인위적 이요, 비성경적이라 주장했다.

이렇게 그 당시의 로마카톨릭교회(Catholic Church)의 사제(司祭)들은 지극히 정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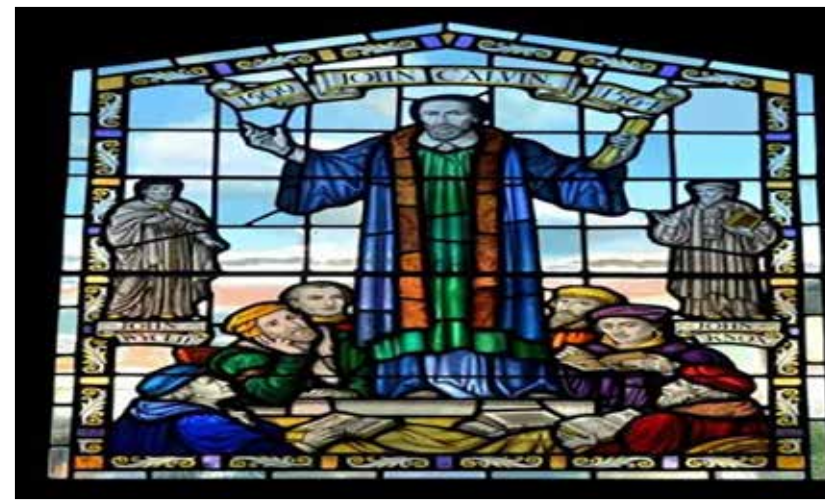
(政治的)이고 형식적(形式的)이고 세속적(世上的)이었다. 또한 영국 국교회(성공회) 역시 이러한 잔재(殘滓)가 많이 남아 있고, 그대로 용인(容認)되고 있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국 국교회가 헨리 8세 때 수장령(首長令, Acts of Supremacy)을 선포하며 로마 카톨릭과 결별(訣別)했지만 예수님이 아닌 왕이 교회의 통치자(統治者), 머리가 됨으로서 교회는 국가의 시녀(侍女)로 전락(轉落)했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성직자들 가운데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까마냥도 많았다고 한다. 결국 설교 없이 의식(儀式)만 거행되는 예배가 만연(蔓延)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빈곤 및 도덕성의 상실로 사회와 경제적인 불

로 나아갔다. 국교회의 탄압 속에서도 설교운동 등으로 동조자를 늘려, 제임스 1세 시대에는 그들 요구대로 “흠정역성서(1611)”가 나오게 되었고, 마침내 찰스 1세 때 혁명(革命)이 일어나 청교도는 크롬웰(Oliver Cromwell)의 지휘

청교도들이 칼빈주의(Calvinism)적인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였으나 이후에 여러 개신교(改新敎)의 산실(産室)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다른 시각(視角)에서 바라보면 더 초기적인 형태의 청교도는 침례교도라고 말하



청교도 개혁운동은 예배개혁에서 교회정치개혁, 정치개혁으로 나아가 미국 건설은 청교주의 영향...17C 청교도 사회를 이상적 세계로 간주

안이 심각했다. 이러한 암흑(暗黒)의 시대에 청교도들은 국교회의 예배의식을 반대하고 초대교회(初代敎會)와 같은 순수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研究)하고 그 성경을 기초로 죄와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중심한 설교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은 거룩과 경건(敬虔)을 생활의 절대적인 요소로 삼았다. 결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모토인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Soli Deo Gloria)라는 온전한 성경적 개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청교도의 개혁운동은 예배 개혁에서 교회정치개혁으로 옮겨갔고, 나중에는 정치개혁

아래 왕정(王政)을 쓰러뜨리고 공화정(共和政)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공화정은 11년으로 끝나고 왕정복고(王政復古)와 국교회의 부활로 청교도는 비국교회파가 되었다. 비록 영국 국교회 내에서 그들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지만 청교도들은 영국 개신교 종교개혁의 주역(主役)들이 되었고, 미국 청교도들의 모체(母體)가 되었다.

5) 청교도들은 개신교(改新敎, Protestantism)의 형성에 큰 영향(影響)을 주었다.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는 “청교도주의(淸敎徒主義, Puritanism)는 궁극적(窮極的)으로 하나의 정신(精神)입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초기의

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교도들이 오늘날의 개신교(Protestantism)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청교도(Puritans)는 서방교회의 ‘교황중심주의’의 핵심인 ‘제도중심주의’로부터 영국(England) 국교회의 순결(purity)과 ‘복음중심주의’를 추구하며 16세기에서 17세기에 활동한 개신교도들이다.

당시 영국국교회는 왕권 하에서 형성되어 개신교의 정신을 강조한 ‘복음중심주의자’들이 거부하던 서방교회의 ‘제도중심주의’를 받아들여, 부분적인 종교개혁 사상과 교회제도를 주장하였다(Julie Spragon, “Puritan Iconoclasm During the English Civil War”). 디아메이드 맥클로흐(Diarmaid MacCulloch)는 청

교도들을 종교개혁의 ‘복음중심주의’를 지향했던 기독교인들로 통칭한다.

청교도들은 개신교 교인들로서 전통적 복음주의(angelism) 안에서 루터주의 계열과 칼빈주의 계열, 잉글랜드 성공회에 소속된 이들과 전통 복음주의를 추구했지만 계열을 추구하지 않던 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전통(傳統) 복음주의자들을 통칭(通稱)하며 개신교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청교도 운동은 1559년 엘리자베스(Elizabeth) 영국 여왕의 등극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국가중흥을 위해 종교적 관용정책을 펴자, ‘피의 메리’(Bloody Mary)의 박해를 피해 대륙에 가 있던 800여 명의 개혁자들이 귀국하였다. 이들은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영국교회 안에 남아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잔재를 제거하고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국자들의 미비한 태도

분리(分離)를 주장하는 등 반문화적인 입장(Christ against culture)을 취하였다.

1980년 이반젤리컬 쿼터리(Evangelical Quarterly)에서 짐 팩커(Jim Packer)는 청교도를 하나의 부흥(復興)운동으로 보았다. 영국에는 리처드 벅스터, 존 번연, 존 로저스가 있었고, 이들보다 덜 알려진 목회자들로서는 케임브리지에서 멀지 않은 케딩톤(Kedington)의 사무엘 페어클로우(Samuel Fairclough)와 서머셋의 마을인 멜즈(Mells)에서 사역한 그의 아들 리처드 페어클로우(Richard Fairclough)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강력한 각성(覺醒)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을 수확(收穫)했다.

청교도들은 종교(宗敎)의 자유를 위해 고향을 등지고 신대륙(新大陸) 미국으로 정착하여 오늘날의 미국의 교회와 정치, 교육,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으며,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영국교회 내에서도 장로교회, 영국의 회중교회, 루터주의 교회, 감리교회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메리카에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하여 미국의 건설은 청교주의(淸敎主義)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청교도들은 정치참여를 한정(限定)된 교회구성원으로 제한(制限)하였고 특히 종교적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일종의 엘리트(élite) 정치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집회소를 중심으로 한 그들의 촌락공동체, 지방분권적인 정치제도의 발달은 미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중앙에 파견하는 대표자를 직접 선출(選出)하고 세대에 의한 공공사업을 펼쳤다는 것은 미국 정치의 중요한 근본(根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갖는 독특한 선민의식(選民儀式)은 미국인들의 낙천주의(樂天主義, optimism)와 깊은 관련이 있다.

지금도 미국인들은 17C 청교도 사회를 이상적인 세계로 간주하고 있으며 물질주의(materialism)와 세속주의(世俗主義, secularism)가 극도로 치달을 때마다 17C 청교도(淸敎徒) 사회로의 복고(復古)를 주장한다.

kimjoyh@hot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금관교회, 든든한교회, 로마인교회, 새에덴교회, 성문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정교회, 승동교회, 시온소교회, 신길교회, 신천교회, 신촌교회, 안암제일교회, 양곡교회, 왕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의교회, 충신교회.

한교총 “온라인에배연장” 전국 교회에 협조요청

예장합동, 1000명 설문결과 “개신교 가장 큰 타격” (82%)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예배의 연장이 불가피하며 전국 교회의 협조를 구했다.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의 신뢰도가 타 종교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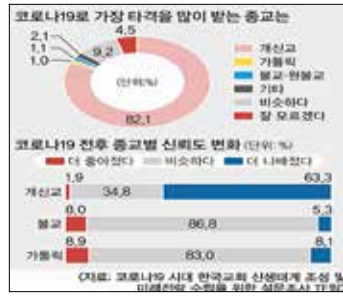
한교총은 이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예배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한교총 소속 모든 교단은 국민 모두가 함께 힘들고 아파하는 이 기간에 이웃과 함께하며,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교총은 방역 당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면, 방역을 지

는 선에서 교회 활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교총은 지난달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해,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내 교회 예배를 2주간 온라인으로 대체해 드리기로 했다. 대다수 교회가 이에 맞춰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산하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 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TF팀(대표 소강석 목사)’은 설문 조사 결과 67.3%가 코로나19로 종교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가장 타격이 큰 종교로는 개신교(82.1%)를 꼽았다고 밝혔다. 가톨릭 불교 등 타 종교가 타격을 입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 안팎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3-21일 지



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온라인패널 방식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의 종교 영향 및 일반 국민의 기독교 인식을 주제로 한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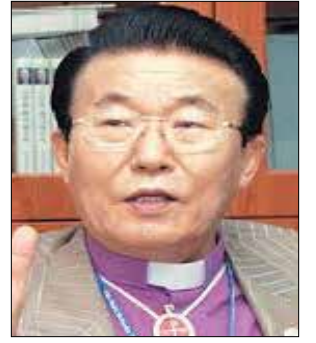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신뢰도가 가장 떨어진 종교도 개신교였다. 개신교의 경우 더 나빠졌다는 답변이 63.3%로 가장 많았고 비슷하다는 34.8%, 더 좋아졌다는 1.9%였다.

반면 불교와 가톨릭의 경우 80% 이상이 비슷하다고 답해 신뢰도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의 대응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교회 모임·행사·식사 자제’ ‘교회 방역과 감염예방 수칙 준수’ ‘교회를 향한 정부·사회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세 가지 항목에서 평균 74.0%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개신교가 사회를 위해 힘써야 할 활동으로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60.6%) ‘사회적 약자 구제·봉사’(49.6%) 등을 꼽았다.

TF팀은 “앞으로 어떻게 한국 기독교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심어줄 것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적 요구를 귀담아듣고 다양성과 포용력을 갖고 자아 성찰과 회개를 간구하는 개신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3.1% 포인트다.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별세, 향년 83세



김홍도 서울 금란교회 목사(사진)가 2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1938년 평안남도 양덕군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이날 오전 8시 5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1963년 서울 감리교신학대를 졸업한 뒤 경기도 가평 상천교회에 부임했다. 김 목사는 생전 “먹을 것이 없어 허기에 지치고 추위에 떨면서도 기도와 성경 읽기에 오롯이 힘썼던 시절이었다”고 첫 사역지를 회상했다.

금란교회에는 1971년 부임했다. 당시 교회는 99.1㎡(30평) 면적에 75명의 교인이 출석하던 서울 외곽의 작은 교회였다. 김 목사는 “부임하던 첫날 감리교에서 가장 큰 교회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회에서 김 목사는 2008년까지 사역한 뒤 은퇴했다.

‘영혼 구원’ 일념으로 금란교회를 세계 최대 감리교회로 부흥시킨 김 목사는 교단에서도 많은 봉사를 했다.

그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서울연회 감독과 기감 감회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그는 2007년 6월 세계평화상위원회(WPPAC)가 수여하는 세계 평화상도 받았다. 당시 김 목사는 피델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과 세계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추모관에는 교인과 지인, 교계 관계자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향보원 목사는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이 그림자”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고 그리움을 남겼다. 손영배 권사도 “항상 아버지처럼 기둥이 돼 주셨는데 많이 아쉽다”면서 “목사님 뜻 따라 신앙 생활 열심히 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김경숙 권사는 “평생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나라 사랑에 앞장서셨던 목사님의 뜻 잊고 살겠다”고 말했다.

금란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족과 친인척만 모시고 장례를 진행한다”면서 “일체의 조문과 조의금,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장통합, 사상 첫 온라인 총회 결정

50인 이하로 37개 교회 흠어져 만나절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이 사상 첫 온라인 총회 결정을 결정했다. 예장통합은 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임원회 결정과 규칙부 해석 등의 절차를 거쳐 제105회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1500명 총회 대의원(총대)들이 애초 총회 장소이던 서울도립교회(명정철 목사)를 포함한 전국 37개 회집 교회에 흠어져서 교회당 50명 이하로만 모여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총대 등록은 21일 오전 11시부터이며 개회 예배와 부총회장 선거 등 일정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다. 과거 3박 4일에 걸쳐 진행했던 총회를 만나절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예장통합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추후 결정되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제13차 교회대응지침을 발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종료 때까지 주일예배 교회학교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의 모든 공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공지했다.

예장백석, 올해 총회 만나절로 단축 진행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총회장 장중현 목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는 14-15일 개최하려던 총회를 1주 연기하고 만나절만 진행하기로 했다.

예장백석은 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해 이틀간 예정됐던 정기총회를 하루로 줄여 오는 22일 오후 1-5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결정은 헌법위원회와 규칙국, 정치국 등 관련 부서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 장소도 숙박시설과 대형 회의장이 갖춰진 강원도 원주에서 온라인 회의 중계가 가능한 곳

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면 영상회의, 권역별·노회별 집결 후 영상회의, 전 총대가 참여하는 대면회의 등의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예장백석 관계자는 “만나절 총회 개최가 가능한 것은 별도의 선거운동 없이 추천제로 임원을 선출하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확산자 추세를 보며 조만간 회의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총회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 구성, 기구개혁위원회 신설, 군선교후원회 조직, 음악목사·상당목사 신설 등의 안건이 다룬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 77% “입법 불필요”

한교총, 찬반 주장 설명하고 전국 2000명 여론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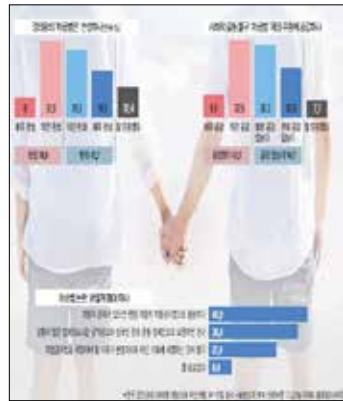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에 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최대 77%였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중 88.1%가 차금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부정직한 여론 조사의 대표적 경우”라며 “차금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한교총은 2일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4-17일 4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자들에게 정의당이 발표한 차금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양쪽 주장을 인지시킨 후 종합적으로 찬반을 묻는

결과, 찬성 33.9% 반대 47.7%로 반대 찬성보다 높았다. 한교총은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한 후 중립적인 관점에서 질문했어야 하는데 인권위 설문은 아무런 설명 없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응답하도록 설문했다”면서 “아무 설명 없이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타나므로 높은 찬성률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금법에 관한 찬반 의견을 응답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뒤 설문했고, 그 결과 반대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차금법 발의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40.8%가 “차별의 문제가 있으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36.9%는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 문화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었다. 응답자 중 77.7%가 차금법 등 추가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므로 이번 기회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7.9%였다.

사회적 갈등이 있더라도 성 소수자와 특정 종교 소수자 보호를 위한 차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나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6%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는 42.2%였다.

전피연, 이만희 2000억 횡령 추가 고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신강식 대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악성정전(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일, 이 교주를 2000억원 비자금 조성고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신강식 대표는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교주가 수천억원 현금을 지닌 명의로 쪼개서 관리했고,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신도들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가져다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이 교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피연 측은 “이 교주가 경기도 과천 일대 공시지가 17억원, 시가 28억원에 달하는 땅을 자

신의 명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주 등 신천지 지도부가 과천에 총회 성전을 짓는다며 신천지 과천요한지파에 67억원, 대전 마다아지파에 55억원 등 12지파에 건축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20년 가까이 할당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신천지에서 차명 재산을 관리했다는 공익제보자 A씨는 지난 4월 한 방송을 통해 신천지 총회 건축헌금 등의 명목으로 거둬들인 2000억원을 총회 차원에서 차명계좌로 분산해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와 함께 이 교주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위장 잠입 신천지 신도 45명 확인”

CCC, 조직 외해 시도 강력 규탄...법적 조치 경고

한국대학생신교회(CCC·대표 박성민 목사)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악성정전(신천지·교주 이만희)의 CCC 내부 위장 잠입과 조직 외해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CCC는 최근 발표한 ‘신천지 집단 전 대학부장 박수진 탈퇴 기자회견’에 관한 입장문에서 “신천지 집단이 CCC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신도 투입 및 정보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만행을 지시한 이만희 교주와 그것을 시도한 신천지 집단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CCC는 어떤 형태의 침투도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CCC 내 신천지 집단 소속 신도를 발각될 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8년간 신천지 집단에 있으면서 12지파 전국 대학부장을 지낸 박

수진씨는 지난달 28일 신천지 탈퇴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 6월 CCC가 한기총 탈퇴를 선언하자 이만희 교주가 직접 CCC 정복 지시를 내렸다”면서 “총회 전도부장을 중심으로 조직적 침투 활동이 진행됐고 대학생 신도 42명이 투입돼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CCC는 곧바로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 CCC는 “조사 결과 각 대학 CCC에 위장 잠입한 신천지 집단 소속 신도는 모두 45명으로 밝혀졌다”면서 “일부는 초기에 발각돼 퇴출당했고 대부분은 지난 2월 신천지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연락이 끊기는 등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단·사이비 집단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교육을 통해 신천지 집단의 위장 잠입 활동을 무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 시대 맞는 온라인 선교 인프라 개발”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 새 이사장에 이성화 목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국내 최대 선교 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를 이끌어갈 새 이사장이 선출됐다.

GMS는 3일 경기도 화성 GMS 선교본부에서 열린 제23회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투표에 참여한 이사 310명 중 173표의 지지를 받은 이성화(서문교회) 목사가 신임 이사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이사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장이 돼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때에 부담과 고민이 크다. GMS의 선교사와 행정본부, 선교사역본부 마리를 맞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 이사장은 GMS 이사와 실크

로드 부위원장, 메도지역위원장, 부이사장, 정책위원장 등을 거쳤다. 이사장 임기는 2년이다. 이 목사와 경험한 조승호 목사(은샘교회)는 134표를 득표했다. 무효는 3표였다.

이 이사장의 취임으로 GMS는 내부적으로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동안 GMS 이사들이 결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전문위원인데 지역위원을 하는 이사도 있었다”면서 “그러다 보니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사들이 많았는데 튼튼한 GMS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본부의 역할도 분명히 할 계획이다. 현재 GMS는 선교사 파송과 행정본부, 선교사역본부 등 3개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교사가 이끄는 선교사역본부를 중심에 두고 행정본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재구성한다는 게 이사장의 구상이다.

취임 즉시 수행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됐다. 시대에

맞춰 GMS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면서 “16개 지역본부와 마리를 맞아 영상과 온라인을 활용한 선교 인프라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5G 시대 선교는 드론”

ACTS 드론선교 운용자 과정 15일 개강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평생교육원의 ACTS드론아카데미는 한세대 한세드론아카데미와 국제드론민간조사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오는 15일부터 ‘드론 선교 운용자 과정’을 실시한다(포스터).

ACTS드론아카데미는 지난 2월 한세드론아카데미와 MOU를 체결하고 선교와 드론을 접목한 교육 과정을 개발했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교육 프로그램은 5G 등 3개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교사가 이끄는 선교사역본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경찰대학 이병석 기

획협력과정의 ‘드론의 미래전략’, 한세드론아카데미 양현호 교수의 ‘드론 구조와 비행’, 박범수 실기교관의 ‘드론 비행 연습’ 등 드론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배울 수 있다.

ACTS의 소윤정 드론 운영교수는 “드론과 선교를 주제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소 교수는 “드론은 선교에도 필수 도구가 될 것”이라며 “선교사가 선교지를 탐사하고 구제지역을 펼치는 데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교총, 9월 ‘한국교회기도회’ 취소하기로

전국 교회와 기도회 자료 공유해 뜻 이어가기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오는 16일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9월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한국교회기도회)를 취소했다.

한교총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진행된 상황에서 현장기도회 진행이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교총에 따르면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 전국의 지역 기독교

연합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국교회기도회 추진위원회는 이날 현장 기도회를 취소하는 대신 관련 자료를 전국 교회와 공유해 기도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교회기도회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같은 달 25일부터 해당 법의 입법 철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해왔다. 지난 달 12일에는 서울 용산구 은누리교회(이재훈 목사)에서 한국교회 기도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우울증과 영적 치유” (24)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6. 예수님 - 슬퍼하시고 고민하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고문, 조롱, 아픔, 고통을 겪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을 견디셨는지를 묘사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겔사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

고 슬퍼하시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

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26:36-39).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신이 품소 받으셨기에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우리의 건강, 직장, 물질, 그리고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잃게 될 때 아픔과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상실감과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치유하시며,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나눔께 기도하라. 2)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일시적인 선물이기 때문이다. 3)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구하라.

기도: “예수님,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지요. 제 삶에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저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

심한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움을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후1:3-9).

바울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받았다. 무언가 선한 일을 했는데 오해 받거나 박해를 당한다면,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주님께 지켜 주실 것을 간구하라.

기도: “예수님, 모든 거짓 비난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와 지식, 이해, 그리고 계시를 주셔서 저의 문제를 주님의 길로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yonghui.mcdonald@gmail.com

죄 없으신 예수님도 당하신 고통, 주 앞에 내려놓도록 오해나 박해를 다 알고 계신 주님께 지켜주실 것 간구

평안을 주신다.

1)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라. 중재, 평화, 인도, 이해를 얻기 위해,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마음인지를 나눌 지혜를 주십시오 하

를 기도합니다.”

7. 바울 - 사형선고 받은 것 같은 어려움을 겪다

바울은 전도를 시작한 후

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선교 소식

파라과이

1. 감사한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많아서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만 적어봅니다

1)어렵지만 정기적인 전도 활동을 지혜를 주셔서 계속 전도하게 된 것

2)화상으로 자리가 잡힐 정도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3)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전능자, 무소부재자, 우주주 운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된 것

4)공동체가 같이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것

5)일용할 양식과 날마다의 건강 유지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일입니다

2. 할렐루야교회와 지교회인 Amorpaz 사랑과평화교회는 겨울이 다가와서 많이

추웠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쪼리 신발로 후덜후덜 떨고 교회로 오는 애들에게 양말과 담요를 구입하여 나누어 주는 사랑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Zoom 예배가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심방가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며 복음의 메시지도 전하고 기도도 해 드리고 신앙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경공부를 시키는데 노트에 성경구절을 기록하여 가지고 오라는데도 노트 구입할 돈이 없어서 못 하다고 하여 노트와 볼펜을 구입하여 나누어주고 사도신경 설계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가족들도 몇 가정 있어 그들을 심방하면 참 가슴이 메어 지게 아픈 때도 있습니다. 어느 한 집은 침대 하나에 다섯 식구가 같이 자는 것을 보고 조이는 가슴을 부둥켜 앉았 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지만 주일예배는 화상으로 잘 드리는 편이고 주중 가정심방으로 신앙을 북돋우어드리고 있습니다. 화상 예배중 중간에 퇴장하는 가족이 있어 왜! 나갔냐고 문의하면 충전 돈이 떨어져서 나갔다고 합니



다. 그 스마트폰도 없는 가정 이 몇 가정 있어서 참 마음 아픕니다. 예배를 마냥 드리 지 못합니다. 그런 가정은 심방을 더 가야 합니다.

3.기독교예술 유.초.중.고등학교 개학

1)엄마들이 정말 학교가 얼마나 귀하고 선생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함을 깨달았다고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가정 이 50%도 안되고 그나마 핸드폰으로 숙제를 받고 숙제를 보내오는데 그마저 스마트폰이 없는 뚜껑 전화기나 돈을 충전해 사용하는 학생들은 재택 공부 숙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집은 애들이 2-3명 되는 가정

은 무려 20-24과목을 회상으로 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요. 중노동입니다. 중고 컴이라도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ZOOM을 사용하는 분들이 20-30% 수준이라 재택 수업이 정말 어렵고 선생님들도 컴퓨터가 없는 분이 계시니 더욱 난감합니다.

3)학교 운영 문제입니다. 가택 출입을 못하게 하니 학부모들이 학비를 납부하기도 힘들고 8월 월급을 겨우 이 것저것 모아서 지불하였는데 울해를 넘기는 것이 참 힘에 겹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랑한 파라과이에서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 드립니다. amorr1004@hanmail.net

3. (모임)제한 규정에 허용된 형태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모임 장소를 시작한다(예: 카페, 탁아소, 클럽 하우스, 빈 식당).

4.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효과적이며 미래에는 무엇이 효과적일지 계속 질문하라.

5.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어린이 지역의 옵션을 제공한다. 가정예배, 소그룹 모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대규모 그룹 등.

6. 다른 상황과 문화의 교회들을 연구해 그들이 대안이 제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배우라.

7. 잠재적 제자들의 새로운 집단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중에 여러 번의 예배를 드려라.

8. 대규모 모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 충분히 알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랫동안 대면 모임으로 돌아가는 것을 연기하라.

이러한 여러 유형 중 어느 것도 옳거나 그릇되지 않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고 상상해보자. 새로운 소화기를 만들 시간은 없다. 당신이 이미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새롭게 시작할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능력이 있는 소수의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일생의 기회가 될 것이다.

다음 일어날 일 발견하려 시도하고 시험

(4면에서 계속)

지난 10년 간 교회지도자들로 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누가 이미 이것을 잘하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번 위기 동안에도 나는 이러한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인데, 누구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혁신을 원한다면 단순히 모방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배우고 적용할 수 있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도 발견하려면 시도해보고 시

험해보아야 한다. 향후 몇 년 간은 어떤 지도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여기,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도와줄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1. 여러 가지 교회의 모델을 실험해보라.

2. 가정교회의 장단점을 조사해 보고, 왜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들이 상당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지를 이해하려고 해보라.

한부모가정 사역

(8면에서 계속)

2)무엇을 잃었는가를 생각해 보고 적어보면서 그것에 대해 인정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헝크리진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마음의 정리에 도움이 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3)의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 하면서 입을 양쪽으로 벌려 억지로라도 웃어보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억지 미소를 짓다 보면 크게 웃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문제가 작아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4)자신의 아픔을 이해할만한 동성의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회복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5)봉사 할 일을 찾아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예배에 참석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찬송도 부르며 기도도 한다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우울감이 꼭 이혼에 의한 것만이 아닌, 어릴 때 힘이 없는 상태에서 가까운 사람에서 받은 학대나 폭행에 근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기억 속의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용서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다소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속의 인물인 욥을 돌아봅시다.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는 엄청난 손실과 약탈, 육체의 질병, 그리고 아내의 떠남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욥3:26).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

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 하는구나”(욥30:15-17).

하지만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낙심할 만한 상황에 있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늘의 축복을 기대할 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벧4:6-7) hyojungyoo2@yahoo.com

채플린 임상목회 (43)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병원 채플린)

한국의 의사 파업사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위 최전선 근무자(Frontline Workers)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중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이 분명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자신들이 감염되어 치료 중 사망하거나 회복이 되었어도 다시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이들도 있고 감염은 되지 않았어도 중증 감염 환자를 음압병실이나 격리병동에서 특수 보호복(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을 착용하고 매일같이 환자들을 돌보느라 거의 탈진상태에 이른 의사와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필라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방문할 때는 하루 종일 마스크와 안면보호대(Face Shield)를 착용하다보면 안경에는 김이 서리고 숨이 답답해서 한 시간 정도마다 밖에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곤 합니다. 환자 외에도 환자가 격리되어 있어서 방문조차 허락되지 않는 가족들을 돌보는 일로 피로도는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채플린은 환자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 그리고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정서적 심리적 영적 돌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민감하게 그들을 살피고 모든 목회적 돌봄을 제공해야 하므로 늘 긴장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병원은 일반 직장과는 달리 24시간 내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들을 맞아 의료 활동을 하는 관계로 2교대 내지는 3교대 근무를 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항상 상주해야만 합니다. 평상시의 업무도 긴장과 과로가 끊이지 않지만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사태와 같은 전 세계적 장기적 감염사태가 발생하면 때로는 자기 교대시간이 끝나도 며칠씩 몇 주일씩 집중도 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쫓겨 자며 시도 때도 없는 응급 콜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모범 방역국가로 칭송받게 된 것은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런 최전선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작금의 상황에서 각 도시와 지방에 소위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여기서 배출되는 의대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방의료소나 최전선 근무지에 의무적으로 배치한다는 선심성이고 정치적인 졸속 발표를 함으로써 현 병원 전공의와 의대생들뿐 아니라 전문의와 교수들까지 가세하는 양상으로 심화 우려할만한 의료위기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휘발유를 끼얹은 것은 공공의대 입학 자격으로 시민단체나 지지체장들이 추천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가뜰이나 땅에 떨어진 어용 시민단체들의 편향성 때문에 아직도 시끄러운 상황에서 의대생마저 시민단체들의 추천으로 입학자격을 얻는다고 하니 인간의 생명과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고도의 훈련과 지적능력을 요구하는 의사의 자격이 정치적인 동기로 저평가되어 오로지 수적 양산에만 목적을 뒀으로써 의사의 자격 및 자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맡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 의료진들을 파업이라는 초강수로 몰고간 동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생명을 맡아 존각을 다루며 환자를 돌보는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 할 의사들이 파업을 통해 국민들과 환자들 및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의사협회와 정부 관계자들이 어떤 불순한 동기나 의도 없이 마주앉아 하루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에 분명합니다. 대화에는 양보와 타협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좋은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은 결단코 피해야만 합니다. 파국의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전가하는 구태의연한 정치적 발상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안전과 환자들의 치유를 최우선순위로 삼아 의견을 접근하며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와 용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tdspark@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빌레몬 목사에게 주어진 묵회지침(몬1:1-3)찬43장

빌레몬 목사에게 주는 사도의 묵회지침은 어떤 성격을 가졌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집니다(1-2). 그 내용은 한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용납할지를 가르칩니다. 징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보입니다. 둘째, 빌레몬 목사 개인과 교회에게 사도의 가르침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2). 목사 한 사람이 사도적 노선에 설 때 전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으나 거짓 가르침에 설 때 교회는 은혜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리를 옹계 분변하고 그 위에서 영혼을 다뤄야 합니다. 셋째,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3). 사실상 사도의 문안이 묵회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성부와 성자로 오는 은혜와 평강이 지배하는 묵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관계에 이것을 향한 묵회가 되어야 합니다.

화 사도의 감사기도(몬1:4-7)찬262장

교회의 첫 임무인 기도는 사도 자신이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첫째, 사도의 감사는 빌레몬교회에 대한 목사의 사랑과 믿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5). 빌레몬의 묵회적 심정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 증거입니다. 사도는 교회에 부흥의 증거가 보일 때 감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도가 행한 양육의 본이 그대로 전달돼 그리스도형상을 닮은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6).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믿는 일에 하나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셋째, 목사의 목양사랑 때문에 감사했습니다(7). 이 사랑이 교회에 평안과 기쁨, 위로를 가져왔습니다. 한 목사의 사랑의 본이 전 교회에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은 성령이 부어진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수 사도의 사랑의 요구(몬1:8-9)찬473장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에게 나타난 것이 교회에도 나타나도록 성령이 친히 이끄심을 사도의 권면 속에 보입니다. 그는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첫째, 바울은 변치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9). 나이 많아도 변치 않고 행20장 목양원리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남의 재물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눈물과 겸손과 순결로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소아시아가 모두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둘째,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갇혔습니다(9). 위대한 복음을 가진 위대한 사도라 해도 고난과 난관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친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뜻을 기어코 이루셨습니다. 셋째, 갇힌 중에서도 복음의 열매는 나타났습니다(10). 도적질한 오네시모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의 열매를 나타냈습니다.

목 오네시모에 대한 사도의 평가(몬1:11-16)찬375장

사도를 만난 오네시모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첫째, 그는 남을 유익케 하는 자로 성장했습니다(11). 구원받은 후 그의 믿음은 덕을 세우는 선행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선행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됐습니다. 둘째, 그는 바울에게 복음의 심복으로 자랐습니다(12). 복음 때문에 받은 구원의 감격은 그리스도에게 목숨내건

헌신을 하는 마음으로 사도의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해를 받은 빌레몬에게도 유익을 주는 일꾼이 됐으니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기이 하십니다. 셋째, 그는 빌레몬 집 교회의 참 형제로 인정됐습니다. 도둑이 변해 교회의 충성된 일꾼이 된 것은 그 자체가 교회의 부흥의 증거입니다. 사도의 옥중사역은 우리 시대 교회에 구할 본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금 권징의 성경적 원리(몬1:17-19)

첫째, 사도적 노선을 따라야 합니다(17). 주님이 위탁하신 사도적 교훈은 모든 교회의 권징의 표준이어야 합니다. 목사는 교회를 사도의 교훈인 성경의 가르침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세월이 흘러도 영원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덕을 세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나타나야 합니다(18). 이 권징은 영적 권위에 따라 실시하나 언제나 참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 나타나도록 주권이 강조되고 겸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권징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고 치료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형제의 연약을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20). 한 지체의 아픔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세우기 위해 본연의 사명을 회복시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권징이 희색 되는 오늘날 사도적 권징원리를 따르십시오.

토 주 안에서 순종관계(몬1:20-22)

주 안에서 바울과 형제 된 빌레몬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 그는 바울의 선한 뜻을 행함으로 그로 하여금 기쁨을 얻고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게 해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 진실한 성도들을 향한 주의 진실한 종들의 소원이다. 그들은 주 안에서 형제 된 자들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소원한다. 둘째, 그의 말을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바울은 빌레몬이 그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고 말한다.

오늘날 동역자들 간의 관계는 어떠하며,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필요를 채우고 기도한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 거처를 준비해줄 것을 그에게 부탁하고 기도도 그들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기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코로나(COVID-19)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3)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코로나 트라우마를 인식하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산상수훈을 마치신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주님은 나병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 반대편으로 이동하시게 된다.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셨을까? 배에 오르시자마자 주무시게 된다. 그 후 바다에 큰 광풍이 몰아치게 되고 어느덧 물결이 배에 가득해지자 제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큰 풍랑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과 풍浪 속에서도 유유히 잠을 청하시는 예수님을 대비해보자. 제자들 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평생 고기잡이로 업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갈릴리바다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두려워하여 고래고래 고향을 지르며 주님을 깨우게 된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마8:25, 막4:38). 바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속에 있는 우리들의 반응이 아닐까?

거나(고함을 지르거나 싸움을 거는 등), 무관심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2천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8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이미 기록하였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큰 공포의 현장에서 우리들은 마치 배 안에서 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제자와 같지 않은가? 혹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잔뜩 품고 있지는 않은가?

제자들은 큰 풍랑 속에 점점 물이 가득 차오는 배 안의 물을 힘껏 물을 바다로 퍼 나르고 있는데,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고 절박한 순간에 홀로 편하게 잠을 청하시는 주님의 이기적 행위를 보며 분노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들의 목소리는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아닌 홀로 내버려두신 주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였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교육

트라우마가 올 때, 우리들은 두 가지로 반응한다. 제자들처럼 원망하거나 두려움으로 반응

철저한 자의의식과 신뢰집단 힘으로 코로나트라우마 이겨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영적 발달 저해 우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트라우마를 경험한다.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부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한다. 모든 교육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매우 유해한(toxic)사회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아이들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발달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이 3가지 이상의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들은 IQ 112점을 넘지 못하며, 4가지 이상의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으면 IQ점수가 93점이 최고라고 한다. 지난 호에서 언급했듯이 코로나 팬데믹은 분명 성인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자녀들은 이미 상당수준의 지적 발달의 기회를 잃어버렸고, 교육당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영적 영역이 더디 발달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

명심하자! 분명히 트라우마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트라우마는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 폭력으로, 성적 방종과 일탈로, 학업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형태로, 때로는 약물중독으로, 또는 퇴행적 반응으로 나타난다. 학교현장에서도 이러한 트라우마를 가진 학생들은 회피하거나 적대적 혹은 과도한 반응을 나타내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처럼 이를 훨씬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님은 우리가 트라우마를 인생의 긍정적인 도전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풍랑을 아시고도 제자들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 가지”(막4:36). 풍랑이 올 때 주님의 계획은 배에 차오르는 물을 함께 퍼내는 것이 아니라 풍랑 자체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제자들이 배우기 원하셨던 것이다. 바다가 잔잔하게 되자 그들은 큰 두려움(막4:41)을 느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좌절과 고통, 그리고 무기력을 가져다주지만 한편으로 트라우마는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바로 그것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교육의 핵심이다. 교육학자들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stress-induced education, trauma-informed classroom이라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긍정의 심리학이론에서는 어려움을 통하여 변형과 성공을 도출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인지적 능력보다는 강인한 정신력 등 태도라는 사실이 여러 결과로 증명된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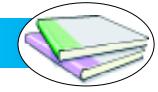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새책소개



현영갑 목사 "자유" 출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 부제로



현영갑 목사(뉴욕 샘물교회)의 저서 "자유"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란 부제를 달고...

저자 현영갑 목사는 "코로나바이러스로 한 인 사회와 교회도 어려움이 많다"며 "외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동안 준비하던 글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출판소감을 전했다.

저자는 머리말 서두에서 '기독교의 핵심은 자유다'라고 규정하면서 "잃어버린 자유의



있는 신념하에 탄생된 정부가 미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소개하고 세계 최빈국에서 70여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

정'을 시작으로, 2. 전통과 질서 3. 예루살렘 성전 터 4. 벨렐 신앙을 배워라 5.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세운 이스라엘 6. 자유 민주주의의 나무는 기독교의 뿌리에서 자란다 7. 하나님이 창조주일 수밖에 없는 이유 8. 하나님의 섭리 등 8장으로 돼있다.

이 책을 위해 이준근 박사(국제정치학자), 정기영 박사(희망을 노래하는교회 담임목사), 신성욱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철학) 등이 추천사를 썼다.

저자 현영갑 목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하고 도미, 미주장로회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학위를 받고 뉴욕샘물교회를 개척했다.

2016년부터 3년간 (사)이승만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사무총

기독교의 핵심은 자유... 잃어버린 자유 회복해야

회복이다. 그것이 영적 자유이든 육체적 자유이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유의 회복"이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치유와 회복이다. 자유는 알파와 오메가의 핵심"이라고 단언한다.

현 목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자유 회복을 하려는 노력이 자유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만들었고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을 들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보편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생명, 평등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지킬 수

선진화를 동시에 이룩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대한민국이 요즘 맘모니즘에 병이 걸려 정신이 헤이해져 민주화라는 거짓에 속아 나라를 공산주의 세력에 넘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차대한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기독교는 무엇을 잘못했고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과 회개를 통해 말씀으로 돌아가는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

책은 1. '자유를 행한 구속사의 여

장으로 활동했으며 뉴저지에서 '이승만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원장으로 '자랑스런 대한민국 건국사' 세미나를 인도하며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알리고 있다.

한편 현영갑 목사는 두 번째 책을 마무리하고 기독교 영성에 관한 세 번째 책을 준비 중에 있다. 현 목사는 시리즈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책은 미국내 서적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저자 연락처: (646)483-4867 (유원정 기자)

코로나(COVID-19) 세대를 ...

(14면에서 계속)

그래서 요즘의 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코로나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악성 베토벤을 아는가? 그는 20대부터 점점 청력을 잃어가다가 그가 45세 때에는 완전히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 그러한 트라우마 속에서도 그는 마침내 그의 불후의 명작인 6번 심포니를 작곡하게 된다. 트라우마는 좌절과 포기나 아니라 새로운 도약과 번성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고 인생의 열매는 고통을 통해 피어나는 법! 바로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핵심이고,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육내용이다.

성경에도 이런 예들은 얼마나 많은가? 아브라함의 일생은 갈 바 모르는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그런 트라우마를 늘 믿음으로 승화시킨 사람이었다. 모세는 사람을 죽여 도망한 자라는 트라우마를 평생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욥, 주님의 제자요한, 사도바울,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요한의 삶을 반추해보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삶의 여정을 생각하자.

필자는 다니엘을 우리 자녀들이 본받아야 할 인물로 꼽는다. 그는 15살에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에 포로로 끌려가 70여년을 이방인으로서 낯선 문화, 우상숭배로 가득한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왕조를 섬겨야 했다. 참으로 그의 일생은 트라우마로 가득한 삶이었는데

그는 트라우마를 슬기롭게 극복했을 뿐 아니라 후세에 모범이 될 신앙의 지표가 되었고 세우놓았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두 가지를 기억하자. 철저한 자의의식과 신뢰로운 집단의 힘!

첫째, 그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각하고 있었다. 다니엘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이다. 자신을 아는 것은 곧 자기 통제력이고 이는 곧 어려운 트라우마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 둘째는 좋은 친구들과 늘 함께 평생 믿음 안에서 교제하였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그러기에 코로나라는 트라우마가 팽배한 현 시점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시사하고 있다.

hle0414@gmail.com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16. 성경적 가정관

하나님 천지창조의 절정은 인간, 즉 남자와 여자의 창조이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 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직접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 바로 가정인데, 그 가정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형입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 된 셈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깊은 뜻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미 알고 있는 사탄, 마귀는 말세기적 가정 파괴공작으로 가정의 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가정

묘사했습니다(사62:4-5, 2:19-29, 말2:4).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결합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맺어진 연약관계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엡5:31-32)고 했습니다. 가정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한 한 질서일 뿐만 아니라, 연약의 공동체이며, 구원과 사랑을 경험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정은 창조의 한 질서, 언약과 교육의 공동체

관 확립이 시급한 시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1. 가정은 창조의 한 질서이다 (The Divine Order of Creation)

가정의 창조는 하나님 창조의 핵심이며 질서입니다. 가정이란 6일 동안의 하나님 창조가 진행 되어 가는 경륜과 질서의 가장 중요한 한 영역으로 이해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기독교적, 존재론적 근거는 곧 '창조의 질서(The Divine Order of Creation)'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가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행위에서 찾아야 하며 하나님의 인간 창조 그 자체가 출발점부터 가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가정은 언약의 공동체이다 (The Covenant Community)

가정의 언약관계는 본질적으로 절대자와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관계에 기초합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성립된 계약관계를 때때로 부부관계의 언약으로

3. 가정은 하나님의 교육공동체 학교이다 (The School of Community)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의 장(場, Field)이요, 공동체 학교(The School of Community)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육하는 진리의 장(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교육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가정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부모는 언제나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자녀들은 항상 배우는 학생으로서의 주종관계가 아니라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의 성장과정을 사랑으로 지켜보는 '관찰자', '대화자', '안내자'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사랑하는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랑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란 자녀를 가르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참된 부모가 됨으로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만남과 양육과 대화와 돌봄 그리고 숭선수법에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참다운 변화를 통해서만 자녀들의 참다운 인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뉴 패러다임 목회와 선교를 위한

Dynamic pastoral leadership

목사, 선교사를 위한 리더십 박사학위 과정

Doctor of Leadership 48 학점과정

Pastoral Leadership, Mission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60 학점과정

Pastoral Leadership, Mission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636) 327-4645 usa@midwest.edu

인/터/뷰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스피셜을 멘토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회' 한다

한국 양곡교회를 비롯해 미국, 캄보디아, 아프리카, 케냐 등 해외에 양곡교회를 설립하고 연합당회장으로 교회를 돌보고 있는 지용수 목사가 LA를 방문했다. 교단 총회장(예장통합)을 역임하

고 지금도 교단과 한국 교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용수 목사를 만나 그간의 목회 소식과 팬데믹 시대를 지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고견을 들었다.

주님의 종 ... 순종하는 목회 이어와

“개인적으로 스피셜을 멘토로 모신다”고 입을 연 지용수 목사에게 목회철학이 무엇인가고 질문하자, “내가 주님의 종인데 종에게 무슨 목회철학이 있습니까. 교회와 목회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 순종하는 목회를 합니다”라고 답한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목회”를 이어왔다는 지용수 목사는 설교준비를 할 때마다 이번 주엔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앞에 물으며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도 전하고 삼방도 해왔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직원들과 모임을 가질 때도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어찌죠?”라는 질문을 하고 떠오르는 것을 메모해서 전하면 그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 이처럼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뜻을 따라 순간마다 살려는 의지 때문인지 지난 38년 동안 행복하고 아픔이 없었으며 앞으로 행복하고 목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목회를 하며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은 ‘영혼구원’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전도에 힘쓴다. 한국에서는 물론 여행 중에 호텔을 가도 팀과 함께 전도지를 놓고 오는 것이 그의 일상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어떤 교회를 꿈꾸며 목회해왔는지를 묻자, “전도를 받아 교회에 발을 딛고 구원의 기쁨 속에 행복해 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교회는 행복해서 견디지 못하는 놀이터 같은 행복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껏 달려왔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미국에 와서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피어 39에 가서 물개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곳 관리사를 찾아가 ‘여기를 철조망으로 막았나?’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아니라’며 물개들이 절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개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이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물개에게 더 없이 좋은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저는 기억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아 좋다’고 말하며 떠나갈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행복한 교회를 지향하며 목회를 이어오고 있는 지 목사는 지역사회에 고무적인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곡교회는 교회절기 때마다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고, 극빈자들에게 양식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

팬데믹 시대, 양곡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물었다. “의자에 넘버를 붙여놓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뜨거움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 대면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100% 다 나오지는 못해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한다.



지용수 목사

이 빨리 오도록 믿는 자들이 진정한 기도를 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교회는 축복의 집, 모이기 힘써야

그가 대면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를 물었다.

“지금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행정명령도 존중해야 하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도 존중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 존중하며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예배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축복의 집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데

교회의 미래는 신학교...교수들이 성령의 사람 돼야 기독교문화 형성된 곳에 사도행전 역사 다시 일어나길

기에 지역사회에서 ‘고마워하는 교회’로 꼽히게 됐다고.

뿐만 아니다. 300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현지 선교사 800여명을 양육할 준비가 돼있을 만큼 선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 목사는 교우들이 성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수 믿으면 순교도 당하고 때로는 감옥도 가지만 결국 하나님은 복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교우들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마치 백화점에 가면 모든 물건들이 거의 다 준비돼있듯이 설교를 통해서도 영혼구원은 물론 가정이 행복하고 승리하기를 늘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팬데믹시대, 더욱 진정한 예배 필요

팬데믹 사태에 관해 지 목사는 “팬데믹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라고 힘 있게 말한다. 그는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들며 “다윗이 하나님을 거스를 때 채찍질한 것이 전염병이었지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할 때 전염병을 거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계 흐름을 따라 조심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팬데믹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니 세상 사람처럼 지나치게 불안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예배도 예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 쭈거나 유튜브로 예배 하지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

막 시기에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숯불이 함께 모여야 열기를 내지 않습니까? 흩어 놓으면 꺼지게 됩니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대면예배 드리러 나올 때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동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성령의 열기가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안개가 산을 휘어 감는 듯한 느낌이 있지요. 성전에 들어서면 평안하고 주 날개 밑에 안기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품이며 젖줄 같은 곳이지요. 어서 이 상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라며 모이기를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현실적으로 동영상예배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어

서 목회자들은 자기 의견을 말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좋은 신학이 있어도 성경을, 신학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되지요.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라, 오라, 모이라 하기에 따라 가야합니다. 이 전염병을 언제 가져갈지 모르나 더 폭발 부흥한 곳은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모임이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집니다. 교회예배는 생명 같이 지켜야 합니다. ‘교회 안 나가도 은혜 받는다?’ 이견 다른 복음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교회지만 예배당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성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집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교계와 성도들에게 향한 당부

주의 종들 목회자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는 지 목사는 “세상 문화의 흐름으로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했을 때 ‘가나안은 견고한 성, 거인들, 군사들이 있는 이 견고한 땅을 어떻게 정복할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한 열두 정탐

래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팬데믹 이후에 가나안의 축복을 예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 교계리더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렘 같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레아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코 세상의 상황대로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풍랑 속에서도 힘을 주었듯이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목회자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시31:24)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집을 지어라. 근사하게 살아라. 텃밭을 만들어 열매를 먹고 강해지라, 자녀를 낳아 번성하고 사로잡은 도시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때가 되면 본국으로 보내준다고 외쳤습니다. 꿈같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70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시듯이 지금 우리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힘 있게 살아 갈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교회의 미래는 신학교에 있다”며 “신학교 교수들이 칼빈, 바울,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정말 불같은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사도들이 돼 전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했다.

(이성자 기자)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0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p>추천 도서</p> <p>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신영, 시와정신사</p> <p>모두 거짓말을 한다 EVERYBODY LIES 스스노비슨 데드워즈, 데스트</p> <p>침묵 앤도 슈사쿠 홍성사</p> <p>말그릇 김윤나 카시오페아</p> <p>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리처드 탈러, 리더스북</p>	<p>회원사</p> <p>남북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p>	<p>후원</p> <p>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p>	<p>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p>
--	---	---	---